

#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바로 눈 앞에 있는 영원

연말기도주일, 2019년 12월 6일 ~ 15일

# 바로 눈 앞에 있는 영원

편집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즉 그들의 최종 목적지, 궁극적인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광야에서 40년의 여행은 이제 그들 뒤에 있었다. 끊임없이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사막에서 죽고 뒤에 남겨졌다.

사단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이제 그는 배교한 선지자를 이용하여 그들을 불쾌하게 하고, 그들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었다.

발람은 과거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 후 배교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전 선지자는 발람에게 가나안의 바로 그 변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확히 멸망시키는 방법에 대한 악마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그의 계획에는 이교도와 우정, 관능적인

음악, 춤, 감각적인 여자 및 술이 포함되어 감각을 흐리게 하고 총체적이고 모욕적인 우상 숭배로 유도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요약하여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민 25:1, 2]라고 언급했다.

하나님께서서는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인들을 멸망시킨 심각한 전염병을 보내셨다. 이 끔찍한 도덕적 재난과 그 즉각적인 결과를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록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음행하지 말자. ...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불평하지 말라” [고전 10:6~8, 10]

우리는 영원의 문턱에서 살고 있다. 이 시기는 우리가 곧 주님을 뵈기를 기대하는 매우 엄숙하고 위험한 시기인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요소를 잘 알고 있다. 사단은 수천년 동안 악마와 같이 맹렬하게 연구하였으므로 각 사람들의 공격당하기 가장 쉬운 점들을 알고 있다. 사단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바알브올에서 것처럼 성공을 거둔 동일한 유혹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자들과 귀인들을 파멸시켰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욕적 방종의 암초에 걸려 깨어진 품성의 잔해(殘骸)들이 흩어져 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단은 각 영혼에게 그의 올무를 놓는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무식자나 교양이 없는 자들만이 아니다. 사단은 가장 높은 지위,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유혹할 준비를 할 것이다. 만일 그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는 3천년 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매개체들을 지금도 사용한다. 세속적 우정, 매혹적인 미, 향락의 추구, 환락, 잔치, 혹은 술잔으로 그는 일곱째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한다. ...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인일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그들 앞에 모시는 데 실패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정신을 품었다. 인일과 방종은 영혼의 성체를 경비하지 않은 채 버려 두는 것이며 부패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원칙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단의 권세에 팔아 넘긴 자들은 성 안에 있던 반역자들이었다. 아직도 사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된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순결과 거룩함에서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전락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부조와 선지자, 457, 458.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접근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빈다! 🙏

긴 여행에서, 궁극적인 도착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쉽게 피로해지기 쉽다. 때로는 목적지가 너무 멀고 먼 것 같아서 우리는 대신 다른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목표에 접근함에 따라, 새로운 각오와 더 강한 위기감, 그리고 소망의식을 가지게 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구상의 어떤 여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 영원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다. 시대의 징조는 우리 주위에서 빠르게 성취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곧 하늘로 좇아 강림하실 것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기도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해를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올해의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 “바로 눈 앞에 있는 영원”은 우리의 타락한 지구상에서 은혜의 기간이 마치기 전에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고무시키고 상기시켜 준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낭독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고립되거나 홀로 신앙생애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도록 할 것이며 다음 날짜를 기억하도록 하자.

**금식 기도일 : 12월 14일 안식일**  
**선교를 위한 연금: 12월 15일 일요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사 25:9]는 말씀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주시기를 빈다.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높이 들리운 영원한 진리의 토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곧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전적으로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과 견해를 견지하고, 각자가 몸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두신 다양한 은사들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신앙의 일치에 이를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9.

**책을 열며** 2

**2019년 연말기도주일**

12월 6일 금요일  
**최후의 위기를 위한 준비** 4

12월 7일 안식일  
**세기의 임박한 위기** 10

12월 8일 일요일  
**자비의 마지막 기별** 15

12월 11일 수요일  
**예언과 약속** 20

12월 13일 금요일  
**드라마(연극)의 마지막 장면** 25

12월 14일 금식 안식일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떠나시는 때** 30

12월 15일 일요일  
**복스러운 소망** 35

**2019년 기도력** 41  
 마라나타

# 최후의 위기를 위한 준비



앨런. G. 화잇 저서로부터 발췌함

## 진지한 장면

1850년 6월 27일에 보여 주신 계시 중에서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때 나의 눈은 지구를 향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자들 중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음을 보았다.

그 후 나는 마지막 칠 재앙이 피난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위에 막 쏟아지려 하는 것을 보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떨어지려는 물방울 정도로 밖에 생각지 않았다. 그 후에 내게는 하나님의 진노인 마지막 칠 재앙의 무서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나는 그의 진노하심이 몹시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보았다. 만일 그분이 화가 나서 손을 뻗으시거나 치켜드신다면 세상의 거민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치료 불능의 중기와 말라빠지는 역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침내는 그것으로

인해 멸망되고 말 것이다. 무서운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천사에게 그 광경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그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한 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중요성에 대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러한 무서운 경고와 선언이 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의 거룩한 안식일을 짓밟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내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졌다(초기문집, 64, 65).

## 더 큰 준비

그 때에 나는... 지상에 있는 남은 무리를 보게 되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마지막 일곱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너희는 이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라. 자기 자신과 재산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그의 제단에 바쳐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

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에는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며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세에 그와 함께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면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어야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 나는 최근에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극심한 시련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뿐 아니라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동시에 아름다우신 왕을 뵈옵고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보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유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보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빈곤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 겪으신 것들을 앎으로서 시련에 부딪쳐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인내와 기쁨으로 그것들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초기문집, 66, 67).

나는 어떤 사람들이 진리의 중요성과 그 감화력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면서 교회의 명령은 무시한다. 그들은 종교란 주로 소란을 피우기 위하여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여러 해 동안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 성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비난하면서 가르치려 든다. 이와 같이 원수에 의하여 교만해진 자들은 진리의 성화시키는 감화력을 경험해야 하며 자신들의 끈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를 깨달아 아는 지각을 얻어야 한다. 진리가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의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를 녹여 없애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 큰 역사가 자신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진리를 공언하면서 진리의 첫째 원칙도 배우지 못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이미 수년 동안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선 자들을 비난하면서, 가르치는 위치에 서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능력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만일 그들이 진리의 성화시키는 능력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의를 위하여 평강의 열매를 맺었을 것이며 진리의 놀랍고도 강력한 능력으로 겸비해졌을 것이다. 이런 능력을 가졌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고 저희 자신들을 위하여 진리가 이론 바를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보다 더 존중할 것이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마지막 기별에 대한 믿음을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이 혼수상태와도 같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아주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의 두려운 진노가 멀지 않아 이를 것이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의 진노가 부어지려 하는 이 때에 그대들은 준비되지 못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남은 무리를 위하여 크나 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들 중의 다수가 사소한 시험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그 천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악한 천사의 군대가 그대들을 함정에 사로잡아 놓기 위하여 그대들 주위를 무시무시한 암흑으로 두르려 하고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와 그것에 수반되는 매우 중대한 진리를 쉽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그리고 그대들은 사소한 시련들을 해결하는 일에 너무도 급급하고 있다.” 편을 나누어 몇 시간이고 질질 끌며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들 양편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

러워져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종들도 그들의 말을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낭비하는 시간 때문에 천사들은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늘어놓는 변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과 당신의 종들이 과오를 범한 자들에게 저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그 영혼들을 불에서 꺼내서 구원하는 일에 바쳐야 할 귀중한 시간들을 그런 일에 허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나는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미 상태에 빠져 어떤 이들은 시간의 부족과 영혼의 가치에 대하여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교만 즉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자랑이 안식일 준수자들 사이에 침투해 들어왔다. 천사는 “안식일 준수자들은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하며 자랑과 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초기문집, 118~120).

### 우선 순위를 정할 것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어두움 속에서 굽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겸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의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틀림없이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들을 파멸시킬 것을 나는 보았다. 누구든지 교만해져서 자신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게 되고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 나는 한 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으나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연약하여 저서 아무 영향력도 끼칠수 없음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죄인들의 영혼을 염려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사소한 시련과 괴로움을 더 생각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그들 주위에서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들의 위태로운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손을 붙들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비의 초청이 끝나치기 전에 담대하게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여 영혼들이 경고를 받고 진리를 받아들일도록 일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천사가 말하였다. 나는 마지막 칠재앙이 피난처 없는 악인들의 머리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제멋대로 살아온 자들은 죄인들의 심한 비난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혼미해 질 것이다.

“그대들은 하찮은 시련 가운데 묻혀 있으며 그 결과로 많은 죄인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있다”고 천사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집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를 좋아하신다. 그는 일하는 것을 무척 기뻐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나는 이 사업을 방해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대리자들은 “아멘” 하고 응답한다.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사단이 확대해 놓은 저들의 사소한 시련과 어려움에 늘 마음을 쓰고 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진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는 것을 보아왔다. 사단은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고 자기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기뻐 날뛰고 있다(초기문집, 120, 121).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 줄 “늦은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

란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초기문집, 71).

### 시련의 때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성경,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그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재물에 얽히도록 일을 주선하고 그들이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함으로 이 세상 걱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놀리게 하여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국의 여러 위정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 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 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

시와 촌락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피에몽 골짜기에 숨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땅의 높은 곳을 성소로 삼고 “견고한 바위”(사 33:16)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인종과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중 더러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히어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즐거이 손을 뻗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 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원의 도시들을 태워 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훌륭한 세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 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25~627).

##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에 변화케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 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거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1권, 33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결함은 우리의 성격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말과 품성에 더 많이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생명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확실한 결과로서 비뚤어지고, 독재적이고, 냉담해지게 된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빛의 광선을 모아 다른 사람의 길 위에 흠뿌리는 것을 평생사업으로 삼아야 한다. ...

## 열매를 맺음

우리는 영광 중에 영생을 위하여나 과멸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시기에서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품성건설을 위해 종사하며 만일 우리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며 갑자기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 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검토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과 영원을 위해 어떤 품성을 만들어 왔는지 보실 것이다. 위대한 영원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우리의 진지한 노력을 통해 얼마나 많은 품성의 열매들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각 사람에게 해야 할 사업이 주어졌으며 그 사업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모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사도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야망에 대해 죽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분명한 입장인가!

모든 사람은 극복해야 할 성격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대의 모본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순종에 대한 그대의 변명이 될 것인가? 그들의 본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그들 앞에 올바른 삶의 방식을 통해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 그대는 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대 자신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영혼과 하나님이 위하여 그대가를 치르신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일에 있어서 의무를 게을리 하면 하나님의 날에 그대의 책임이 얼마나 클 것인가? 불충성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의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왕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큰 정복은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며, 자아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대들이 잠잠할 수 없을 만큼 진리는 그대들 마음속에 불타오를 것이며 그대들은 그것을 말할 의무가 있고 그대들은 그대들의 말을 들을 모든 사람들에



게 그 사실을 옹호해야 한다.

이 시대만큼 엄숙하고 중요한 시기는 없었다. ... 특히 교회의 평신도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의 50분의 1도 하지 않고 있다. ...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나누고 분리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그대들 중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냉담한 마음을 버리고, 사랑, 부드러운 동정, 참된 예의, 그리고 부드러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 오기를 바란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날, 기다리는 시간에 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곧 닥쳐올 이 큰 시련에 적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들 중 몇몇은 마치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천년을 보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그 성경에 이르기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주께서 오셔서 그의 종들과 함께 회계할 때에 그대들은 이기는 자를 위해 마련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그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라’(리뷰 앤 헤랄드, 1885.8.18). 📖

# 세기의 임박한 위기



에드가 라모스 - 볼리비아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와 날이 가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욘 1:15].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 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선지자와 왕, 536).

## 제자들은 그분의 돌아오심에 관하여 그리스도께 물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을 가르키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 24:2]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홀로 감람산에 계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을 따로 분리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두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628).

## 예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 어귀에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이 격동하고 있다. 당신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 24:6, 7).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선지자와 왕, 536, 537).

##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들 중 하나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 24:11]라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 중의 하나로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마 24:11]고 말씀하셨다. 과

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속이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광야에 나아갔다.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은 놀랄 만한 능력을 보이며 백성들을 끌고 한적한 산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 예언은 또한 말세를 위하여 예언되었다. 이 징조는 재림의 징조로 주신 것이다.”(시대의 소망, 63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딤후 4:1].

매일 슬픈 증거는 믿음이 확실한 예언적인 말씀에서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 미신과 악마적인 마법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증가시킨다. 다른 이들은 영적주의에 바탕을 둔 신학이나 다른 동양 종교의 신비주의에 현혹된다. “죽은 후에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는 교리, 특별히 죽은 자의 영이 생존한 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돌아온다는 신조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어 놓았다.”(각 시대의 대쟁투, 551).

오늘날 강신술은 명목상의 기독교와 결합되어 이적을 행하고 거짓된 기사를 행하고 있다. 사단이 성령의 축복을 위조함에 따라 강신술을 통해 병자는 치유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강신술, 가톨릭교, 배교한 개신교가 점점 다 함께 일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계시 요한이 묘사했던 바와 같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계 16:13].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후 11:14].

### 하늘과 땅의 징조들

예수께서는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눅 21:25]고 예고하셨다 [참조: 마 24:29; 막 13:24~26; 계 6:12~1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 24:7].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막 13:24].

“그 때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왕권의 시대 1260년의 예언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시련은 적어도 1798년 이전에 끝났다. 그 무렵 예언의 이행으로서 다음과 같은 징후가 일어났다 [참조: 각 시대의 대쟁투, 304~308, 333, 334].

\*리스본 대지진: 1755년 11월 1일.

\*해와 달이 어두워짐: 1780년 5월 19일.

\*별이 떨어짐: 1833년 11월 13일.

### 더 큰 위기에 다가섬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책임 있는 지위와 편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급의 사람들에게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국제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세상이 바야흐로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선지자와 왕, 537).

“머지않아 나라들 가운데서는 극심한 재난들 -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을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다.”(마라나타, 174).

### 죽음과 굶주림

“위험한 시기가 우리 앞에 있다. 온 세상은 혼란과 비탄에 얽혀 들 것이며 갖가지 질병이 인간 가족을 엄습할 것이며, 건강법칙에 관하여 현재 편만하고 있는 무지는 결국 큰 고통과 구할 수 있었을 많은 생명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마라나타, 185).

“거기에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마라나타, 185).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큰 수용소로서, 그 비참한 광경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현실을 그대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짐은 너무 무거워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그 결과를 멸하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더불어 협력하는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비참한 광경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신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교육, 264).

“그리스도교계가 여호와와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주님께서서는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일, 곧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철회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배한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잘되고 번영하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한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 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

어떤 사람들은 이 이적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들 앞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눈앞에서 이적들이 행해질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 이적들이 더욱 완전히 나타날 때 우리를 기다리는 시련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많은 영혼들이 울무에 걸리고 사로잡히지 않을 것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에서 떠나 헛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

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 같은 거짓 이적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된다. 우리 모두는 미구에 치러야 할 싸움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무장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경건한 연구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는 방패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복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건강에 관한 권면, 460, 461).

### 폭력의 시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창 6:11, 12].

“노아 시대 사람들의 대다수는 진리를 대적하였고, 거짓된 것들에 홀려 있었다. 땅은 강포가 충만하였고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꼭 그러할 것이다.”(성경주석[화이트주석] 1권, 1090).

“살인과 강도, 철도 사고들과 강력 범죄들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있는 끔찍한 소식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말해 준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마지막 날 사건들, 23).

### 노동조합의 행동

선지자 요엘은 마지막 날에 널리 퍼져있는 태도를 예언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욘 3:10].

“노동조합은 저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들고 일어나 폭력을 일삼는다. 세상의 거민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음이 차츰 명백해 지고 있다.

그 어떤 과학적 이론도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악한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행진은 설명을 못한다. 악한 천사들이 폭도들 사이에서 함께 활동하며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력을 휘두르게 한다.”(하늘을 바라보며, 334).

“노동조합은 세계 역사 이래로 환란의 때를 이

세상에 초래케 할 기관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마라나타, 182).

### 지진과 홍수

“화재와 홍수, 지진, 땅 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폭발, 육지와 해상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이다.”(마지막 날 사건들, 26).

엄청난 재앙의 지진이 21세기를 맞이했다. 2000년 이래로 80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다. 예언의 신은 설명한다:

“한 순간에는 견고한 땅에 있지만, 다음 순간에는 우리 발 밑에서 땅이 융기할 수도 있는 때가 지금 도래하였다. 전혀 기대 밖의 장소에서 지진들이 발생할 것이다.”(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21).

### 천연계의 징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사 24:4, 5].

“사단은 대기층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대기층을 중독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완전히 바치고 완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전신이 마비된 자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깨워주시옵소서.”(가려뽑은 기별 2권, 52).

“하나님께서서는 흑암의 세력이 생명과 영양의 근원들 중의 하나인 공기를 독기로 더럽히는 그 치명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식물의 생명력이 영향을 입을 뿐 아니라 인간이 질병에 시달린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지상에 뿌려지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머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미한 묘사이다.”(가려뽑은 기별, 3권, 391).

### 도덕적 재앙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동성 결혼하는 30 개국이 있으며, 더 많은 4개국이 그러한 결혼을 인정한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간청은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악한 도시의 주민들을 살려달라고 한 것을 기억하라.

“원칙의 이상한 포기, 도덕적 표준의 저하가 있다. 노아 홍수와 불에 의한 소돔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쏟아지게 한 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완고함을 오래 참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벌은 확실하다. 세상의 빛이 되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교회증언 5권, 601).

### 하나님의 은혜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징조

“[두 번째 짐승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계 13:15].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확하게 열국과 계산하신다. 회개하도록 부르시며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 이 계정은 열려 있으나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액수에 달할 때 당신의 분노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때는 계산은 끝나고 하나님의 참으심도 그친다. 자비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지 아니한다.”(선지자와 왕, 364).

“하나님은 나라들과 함께 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신다. 하늘 책에는 그들을 대적하는 기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주일 중 첫째 날을 범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가한다는 것이 법률로 될 때에, 그때에 그들의 잔은 가득 차는 것이다.”(성경주석[화잇주석] 7권, 910).

### 임박한 사건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

“세계는 통치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의 프로그램은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하늘의 대왕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요 나라들의 운명을 친히 책임지고 계

신다.”(교회증언 5권, 753).

**결론**

“끝은 가깝다.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선지자는 말하되 ‘여호와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

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슥 2:3)고 하였다.”(마라나타, 37).

우리 모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아멘. 

**오늘날 어떤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1.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뉘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딤후 3:1~7]. 이 구절은 우리 시대의 세계와 그 문제를 묘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요구보다 쾌락을 공공연히 우선시한다. 그들은 항상 “진리”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진리가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인식, “이웃”에 대한 동정심, 권위에 대한 존중, 감사를 필요로 할 때 진리는 무시된다. 우리의 세계는 그들이 쾌락을 구함으로 진리를 빠르게 희생하고 있다. 진리를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다.

2.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는 전에 없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기회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최근의 여행과 통신 수단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은 이 예언을 이행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될 때다. 하나님

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기 위해 그분과 협력하라는 도전을 누가 받아들일 것인가?

3.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는 요한 계시록의 세 천사의 영원한 복음 기별을 반대하는 것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 14:7].

이 기별을 반대할 때 사용되는 거짓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고 따라서 경배는 창조주보다는 그 생물에 주어진 영광과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계 14:8].

이 기별을 반대할 때 사용되는 거짓말: 세상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높은 업적과 진리의 인식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계 14:9, 10].

이 기별을 반대할 때 사용되는 거짓말: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거나 멸망당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다.

이것들은 참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현재의 증거들이다!

# 자비의 마지막 기별

알론소 아마야 - 혼두라스

## 서론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은 각 시대마다 제공되어 왔다. 우주의 주권자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축복으로 그들을 사용하여 “사랑의 줄” [호세아 11:4]로 매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남녀들을 일으켰다. 그분은 큰 자비로 천사들을 특별한 사명으로 보내어 “생명을 보존하” [창 19:17]라는 단순한 기별로 세 명의 영혼을 구원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께서는 또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행 9:4]라는 놀라운 호소와 함께 극단적이지만 가치 있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서도 이 자비의 기별은 과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심을 알리는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도시들에 전해야 한다.

## 6천 년의 시간표

현재 거의 6,000년 동안 진행 중인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이제 막 끝나려고 한다. 사단은 인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들의 결속 안에 영혼을 묶어두려는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의 목표는 구세주의 중보사업이 끝나고 죄악에 대한 더 이상의 회생이 없을 때까지 백성들을 어둠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거의 6천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구에 끝나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518).

“육천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육천년 동안 사단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러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시대의 소망, 413).

이와같이 종교적 영감은 우리 지구의 기간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행위가 호의적이거나 파괴적인 드라마로 약 6,000년에 걸쳐 계시되고 있다. 때에 관한 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쟁투에서 특정 사건이 결정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건설, 흔들리지 않는 만세의 반석은 모든 폭풍우에 직면하여 유일한 구원의 샘물 근원으로 남아 있다.

## 홍수 전 사람들을 위한 은혜

1. 은혜의 시기: 지구 역사의 초창기에 얼마 되지 않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5].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 6:3].

2. **멸망을 초래함:** 전능자는 인간, 짐승, 파충류, 새의 멸망을 경고하셨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창 6:7].

3. **멸망의 도구:** 멸망의 도구는 전 세계적인 홍수가 될 것이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창 6:17].

4. **해결책:** 해결책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창 7:1].

이 홍수 이전 시대의 경우, 자비의 마지막 기별이 남아 있는 시간을 명시했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것은 또한 멸망될 생물, 사용될 멸망의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결정했다. 따라서 홍수 전 시대는 그들에게 알리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의 어떤 방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자비로 그들의 구원을 모두 손에 닿는 곳에 두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관하여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피터 3:20]고 일컬은 이유다. 방주가 준비되는 동안 하나님의 인내심이 남아 있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다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초대를 거부했고, 따라서 그들 자신의 불복종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밤

1. **은혜의 시기:** 평원의 도시에 세워진 사람들은 부유하게 번창했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멸망하지 않으시려고 그의 사자들을 보내셨지만 많은 떡이 이기적인 나태와 죄악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 전령들은 그날 밤 열렬히 호소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창 18:20]라고 그들의 신성한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셨다. 이 비참한 죄악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찌기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창 19:1, 2]. 그것이 그 도시를 위한 마지막 밤이었다.

2. **멸망을 초래함:** 천사들은 경고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창 19:12, 13].

3. **멸망의 도구:**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창 19:24].

4. **해결책:** 롯의 가족이 자비롭게 천사들에 의해 끌려나왔을 때에, 그들은 경고를 받았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창 19:17].

하나님께서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그의 말씀에 주신다. 그는 하늘에서 쏘아올린 불꽃 속에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롯의 요청으로 하나님은 그의 형벌을 소알에게 지시하지 않으셨다. 그 형벌은 역시 평야에 있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롯과 그의 딸들과 함께 그 작은 도시인 소알을 구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자비를 본다.

창세기에 나온 위의 삽화들은 단지 과거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석에 참여하도록 하자.

###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기회

1. **은혜의 시기:** 이 지구촌에 할당된 시간은 한

정되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엄숙한 포고문을 발표하실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1, 12]. 이 경우, 어느 정도 지정된 시간은 부분적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저들을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자들은 ‘믿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저들의 마음은 불평과 반역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주님께서서는 저들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없으셨다.” (복음전도, 696).

“복종하지 않으므로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으면 안 될지 모른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 자신의 잘못된 행동 노선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므로 죄에다 죄를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전도, 696).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써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당신 앞에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신다.” (각시대의 대쟁투, 458).

**2. 멸망을 초래함:** 마지막 시대에, 임박한 영적 위기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요한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는 경고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 14:9~11].

**3. 멸망의 도구:**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본 계시 요한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계 16:1]고 기록했다. 영원하신 분께서는 그 뒤에 오는 마지막 일곱 재앙의 결과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 [렘 4:27]라고 선포하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들과 관련하여, 계시 요한은 다음과 같은 예언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20:9, 10]. 결국 “보라 그들은 초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사 47:14].

**4. 해결책:**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4, 5, 12].

### 1888년, 왕국의 문턱에서

1888년 제칠일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주님께서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온 세상 죄의 희생제물 되신 높이 들림 받으신 구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소개할 기별이었다. 그것은 담보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1, 92).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반응은 엇갈렸다. 배틀크릭에서 강한 반대가 일어났고 주의 사자는 존스와 와그너 목사를 지지하여 교회들에게 기별을 전했다.

“나는 논평과 비평의 대상이 되었으나 우리 형제 중의 아무도 내게 와서 묻거나 설명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집에 유숙하고 있는 우리 모든 목회에 종사하는 형제들을 빈방으로 모아 우리 기도에 함께 연합하도록 가장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이 일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방으로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들끼리 기도하였다. 굳고 단호한 그 편견을 무너뜨릴 기회와 나와 내 아들과 E.J.와 그녀와 A.T.존스에 대한 오해를 제거할 기회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려뽑은 기별 3권, 173).

그러나 그녀는 또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했다.

“나는 모든 합당하지 않은 흥분에 휩쓸리지 않은 채 이렇게 완벽하게 부흥의 일이 진전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살피는 진리가 제시됨에 따라 율법의 빛을 통하여 자신이 범죄자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증거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를 의지해 왔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해 볼 때 더러운 옷임을 보았다. 공개적인 범법자는 아닐지언정 그들은 스스로가 심령에 있어서 사악하고 타락했음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리에 다른 신들을 대치하였다. 그들은 죄를 억제하려고 투쟁하였으나 자신의 힘을 의존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있는 그대로 예수께로 나아가 우리의 속절없는 영혼을 우리의 자비로운 구속자에게 내던져야 한다.”(리뷰 앤드 헤럴드, 1889.3.5).

### 다시 회심하고 재 침례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특권임

“주님께서서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하신다. 한 영혼이 진정으로 다시 회심하였을 때는 재침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의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는 그와 더불어 언약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 신자들 중에 회심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저들은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권위 있는 능력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복음전도, 375).

### 사역자들 가운데 부흥

“복음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롭게 회심하고 재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따르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시고 매일 하늘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의 경험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필수품이다.”(원고모음 7권, 273).

### 최상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심해야 함

“나는 우리의 지도자 형제들과, 우리 목사들과, 특히 우리 의사들에게 말한다. 자존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허락하는 한, 그대들의 사업에는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몇 년 동안 잘못된 영혼이 소중히 여겨져 왔다. 자부심의 정신, 타월함에 대한 욕망. 이것에서 사단은 섬김을 받고 하나님은 불명예를 받으신다. 주님은 결정적 개혁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영혼이 진정으로 회심이 되면 재침례를 받게 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와의 언약을 갱신하실 것이다.”(원고모음 7권, 262).

### 회개하고 우리의 첫 사업을 행함

“이 신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잘못을 보이지 않는가? 그들은 회개하고 첫 번째 일을 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는가? 이 회개, 자복, 침례 사업을 누가 정죄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자신의 첫 번째 의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사업이 아닌가?”(원고모음 7권, 261).

### 난폭한 목사들과 배교한 교회들은 재침례가 요구됨

“너무나 난폭한, 기독교의 예의가 결여된 그

런 혹독한 태도가 공적인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삶에 들어와서 내 심장이 병들고 아프다. 나는 그들이 독생자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데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고 흐느껴 울 수 밖에 없다. ...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회심이 필요한 교인들과 목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의 침례로 부드럽고 순복하는 감화를 필요로 하며, 그들은 삶의 새로운 면으로 부상하여 영원을 위해 철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믿음이 없고 자만심을 품은 자를 보았으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는 결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채침례가 요구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이기심과 자만심이 치료되기까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물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원고모음 7권, 266, 267).

**우리는 곧 시작될 세계적인 사건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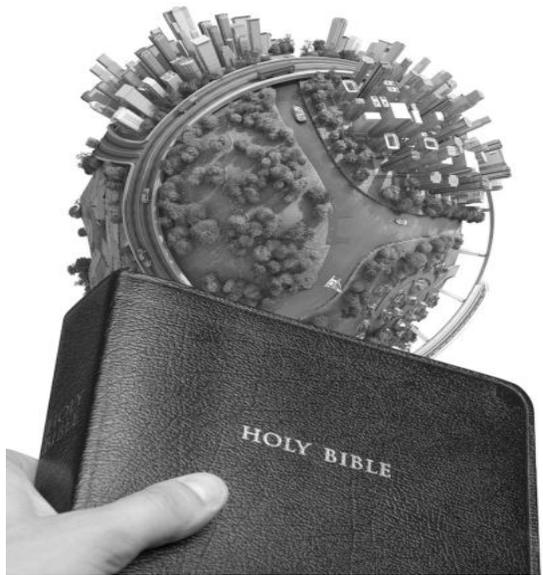
아직 전 세계의 교회로 대표되지 않은 광대한 지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 생애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경험을 갖고 늦은 비에 적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약속한 전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사 66:18~21 참조].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 [아 6:10]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교회가 최후의 구원을 얻기 직전이 악의 세력과 교회에 투쟁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폭풍 중에 피난처’ (사 25:4)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선지자와 왕, 725).

**결론**

이 지구상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존경받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은 우리에게 거의 끝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준비 시간은 거의 끝나간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는 지금 모든 단계의 하나님의 사업, 그리고 또한 이 위대한 최종의 구성원과 후원자로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기별은 신령한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하며 나는 어린 시절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의 모든 말에 순종하면서, 그의 사랑스런 품으로 어린 아이처럼 뛰어드는 것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는 것은 매년 같은 길을 수동적으로 걷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잠 15:24]이 되기 때문이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 [잠 15:24]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우리가 수평적인 평야에서 머물며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복처럼 위로 올리시고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깝고 이 세상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 예언과 약속



알원 베드하싱 - 인도

## 성령

성령은 신성의 삼위이시다. 행 5:3, 4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한 것을 읽게 된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성령은 하나님이다.

성령은 영원(永遠)하심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 9:13, 14].

성령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심 시 139:7~10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나 계심을 드러낸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령은 전지(全知)하심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전 2:9~11].

성령은 전능(全能)하심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눅 1:35].

## 구약성서 시대의 성령의 예언과 약속

구약성서 시대에는 성령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개별적인 인간에게 행하셨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그들의 판단과 구원의 선언이 바탕이 된 신적인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주 여호와 의 말씀에”라는 말을 사용했다.

창세기 20:7에서 모세는 아브라함이 선지자임을 밝혔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그

들은 대변인이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21].

성령은 인류의 역사와 구속 둘 다에 걸쳐 활동해 왔음이 분명하다. 시 104:30이 지적 하듯이, 성령은 모든 창조의 모든 단계에서 활동적이다. 창조시에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 1:2]고 진술한다.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었다. 그러나 자비롭게 하나님의 영은 멸망 후에도 인간애를 계속 다루었다. 이것은 창 6:3에서 나온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셉과 다니엘은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다. 요셉이 창 41:37~40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군주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요셉만큼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켜보았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왕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 [단 4:9]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요셉과 다니엘은 통치자에 대한 꿈을 해석한 후 외국 땅에서 번창했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결과로 높은 직위로 승진했다.

시 51:11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라고 기도하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그도 성령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삼상 16:13에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주의 영이 다윗을 덮었다. 이것은 권력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은혜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로 하여금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 삼상 10:11에 그가 선지자들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예언의 신이 사울에게 거의 아무런 영적 준비도 없이 닥쳤다. 그것은 봉사, 예언, 정복, 지배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었다.

삼손은 모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사 13:25 사사기에서 우리는 주의 영이 삼손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읽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이긴 비결은 “여호와와 신이 그에게 감동하시니라”는 한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선지자 엘리야가 성직자로서 성공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살아 있는 믿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성령에 대한 그의 복종 때문이었다. 선지자 엘리야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을 갑절이나 받았다. 그에게서 엘리야의 영적 능력은 그리스도의 영의 온유함과 자비심,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심과 결합되어 있었다 [왕하 2:9].

사 6:33, 34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성령으로 채움을 받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성령께서는 선지자 느헤미야를 인도하여 그의 백성들의 요구를 위하여 울고 기도하며 금식하게 하셨다 [느 1:4]. 성령은 느헤미야를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었다 [느 1:5]. 성령이 그를 인도하여 개인과 국가의 죄를 고백하였다 [느 1:6, 7].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주의 약속과 전망과 계획을 상기시켰다 [느 1:10, 11].

성령에 관한 선지자 요엘 [욘 2:28, 29]의 예언은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 사 44:3~5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의 영을 내리시기로 약속하셨다. 목마른 사람에게 성령의 약속이 쏟아질 것이었다. 사 32:15~17에서 성령의 강림의 결과는 공평과 의와 평안이다.

[겔 36:26, 27]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을 “너희 안에” 넣어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주의 법도를 따르고, 주의 판단을 지키게 될 것이다. 겔 39:29에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그의 영을 그들의 나라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슥 12:10에는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탄원의 영

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사람들은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때문에 슬퍼하였다.

### 신약성서 시대의 성령의 예언과 약속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도 아래 기록되었다.

침례 요한은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하기 위해 요단 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마 3:1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성령은 목마름을 느끼고 믿음으로 그에게로 올 모든 사람에게 “생수”로 주어질 것이었다[요 7:37~39]. 예수는 제자들에게 돕는 자로서 그들과 함께 거할 “진리의 영”을 약속하셨다[요 14:16, 17]. 주께서 사도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다[눅 24:49]. 이것은 침례 요한이 말한 성령의 침례와 분명하게 연결되는데, 이 침례는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들이 되게 할 것이었다.

비둘기같이 예수께 내려오는 성령은 그의 신성한 기름부음을 나타낸다[마 3:16, 17]. 예수에 대한 성령의 눈에 보이는 강림은 이것이 곧 다가 올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호로 작용했다. [요 1:32~34].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가 서 있을 때 초자연적인 대담성과 권위를 갖게 되어 오순절 날 군중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행 2:14~17]이 언급한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교 과정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을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으로 말했다[행 2:33]. 성령의 선물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행 2:38]. 그 약속은 그리스도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쏟아졌다[행 2:33]. 사도 바울은 유대인 당국이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성령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행 7:51]. 그들은 예수가 지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게도 저항하였음을 명심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올 수도 있고, 믿음을 통해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도 있다”[갈 3:14]고 말했다. 사도 야고보는 동료 신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비를 받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했다[약 5:7].



사도 유다는 신자에게 거룩한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고했다[유 20]. 계시 요한은 예수와 성령과의 관계를 계속했다. 우리는 그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계 1:9, 10]라고 한 말씀을 읽게 된다.

### 성령의 역할

성령은 창조 때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 1:2에서는 성령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했으며 이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성령은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인류를 불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킨다[계 22:17].

마 1:20에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그의 약혼한 아내가 성령을 통해 잉태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성령은 신자들에게 머물며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고전 3:16]. 성령

은 우리의 행동과 언어로 인해 근심하신다[엡 4:30].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롬 8:26]. 그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롬 8:27] 우리에게 말씀하신다[행 13:2; 16:6, 7; 계 2:7]. 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요 14:26].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은 구원의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죄악에 대한 회개로 이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자비에 의지하여 구원으로 인도된다. 우리는 성령 때문에 육신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은 우리가 그의 권능에 굴복하면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주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성령 또한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 자신의 선물을 준다[고전 12:3~5]. 그는 우리에게 그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준다[행 1:8]. 성령은 우리의 교사이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요 14:26]. 그는 우리에게 희락과 화평을 준다[갈 5:22, 23]. 그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는 힘을 포함하여[겔 36:27] 능력을 준다[엡 3:16]. 그는 기도하도록 능력을 주고[엡 6:18], 지혜와 계시를 준다[엡 1:17, 18].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준다[딤후 3:13].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다[마 10:20].

### 마지막 시대의 성령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끄는 것이 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사 30:21].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유월절에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 대리자는 축복을 구하고, 자기에 관한 일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길 기다려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시고 인간을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른비로 말미암아 대표된 은혜를 등한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리뷰 앤 헤랄드, 1887.3.2).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그는 광대한 규모의 계몽과 영혼을 얻은 결과로 모든 육체에 그의 성령을 쏟아 부을 것이다[출 2:28].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 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 주심은 늦은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사도행적, 55).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한다. 개인의 자존심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육신을 이기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받아 소중히 간직할 때, 이 성령은 교회의 내주하시는 손님으로 역사하며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시련이 영혼을 덮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는 성령의 인격 속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심을 기억하라.”(하나님의 딸들, 185).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 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사도행적, 49).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7).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임을 나타낸다[롬 8:14~1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

실한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영적으로 자라려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 우리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과 안정을 주도록 허용해야 한다. 성취를 기다리

는 동안 원수가 낙담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동일한 예수께서 그분의 오심까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보존하실 수 있게 하신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대에게 임하신다. 성령의 뜻을 연구하고 그대의 주님과 상의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라.”(원고모음 2권, 337).



# 드라마(연극)의 마지막 장면



마리우스 스트로이아 - 루마니아

현 시대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6)고 명한다. 그리스어로 ‘아끼라’는 말은 ‘사망으로부터 사거나 몸값을 지불하거나 구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인생에서 남아 있는 시간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만 보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내일은 만회할 수 있어도 어제는 지나가 버린 것이다! 우리만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의 영적 소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거룩하고 의로운 인격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의 많은 길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존재의 세속적인 상태나 우리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다.

시대는 악하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죄 많은 선택이 이루어지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선택들은 모두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더럽힌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주의하라고 촉구하신다.

미국의 시인이자 전기 작가 칼 샌드버그는 다음과 같이 관찰했다. “시간은 당신의 인생의 동

전이다.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전이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쓰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버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동전을 현명하게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매일, 매시간, 매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 우리 자신을 더 낮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이것은 다시 그를 어떻게 섬길지 아는 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선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많은 시간이 낭비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주로 우리와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달려있다. 솔로몬 왕의 말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전 3:1].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사해야 하며, 자세히 살펴본 후에 우리가 이 원칙을 정말 적용하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과거보다 아주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마지막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방관만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려는 찰나에 서 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마지막 투쟁은 짧으나 무서울 것이다. 오랜 쟁투가 재연 될 것이다. 새로운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가려 뽑은 기별 3권, 419).

### 우리의 기대는 무엇인가?

성경은 선악간의 대쟁투가 마지막까지 계속 될 것이며, 그 후에 하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그들 자신의 모조품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세상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지혜에 의지하고 그의 선도적인 손을 믿어야 한다.

종말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노아 시대 홍수가 범람하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대재앙이 갑자기 땅에 덮칠 것이고, 그때 쯤이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기에 너무 늦을 것이다.

이 놀라운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

“세상은 극장이다. 배우들과 관객들은 마지막 대연극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교회증언 8권, 27).

이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들은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현재 현대사회에서 방송매체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텔레비전과 영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TV와 영화속 남녀 영웅들이 그들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역할 모델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그의 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누가 우리

역할의 설계자인지, 누가 우리의 역할 모델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원수는 6,000년 이상, 특히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다.

이 마지막 사건들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어떠한가?

###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실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 2:8].

현대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 진리는 인간의 이론, 추측, 전통을 위해 따로 정해진다. 많은 교회 사람들과 많은 신봉하는 목회자들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 다른 진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그들은 너무나 자주 그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럴 경우 성경의 권위는 파괴된다.

우리는 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는지 기억하는가? 결과는 어떠한가?

### 적의 전술을 알아차리는 것

하늘에서 대쟁투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한 사단이였다.

창조주에 대한 그의 반란이 그를 하늘에서 내 쫓기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려는 극악 무도한 계획을 계속하고 있다. 사람을 속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몰아가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기회도 잃지 않고 있다. 사단이 그의 계획을 이행하는 방법은 율법을 완전히 제쳐놓거나, 그 율법 중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방침은 그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똑같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를 굳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밀히 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각

시대의 대쟁투, 591).

하나님은 결코 의지나 양심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개념이 있다. 그러나 사단의 지지하지 않는 노력은 그가 달리 속일 수 없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각 시대의 대쟁투, 591).

###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는 딤후 3:1~5에 기록된 고통의 때의 성취에 살고 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듣는 즐거움이나 기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딤후 4:3, 4].

어느 날, 나는 다른 종교 교단 출신의 남자와 성경 연구를 했는데, 그 성경 연구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동의했다. 얼마 후, 그는 돌아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안식일에 대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왜 나는 전에 나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가?”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요일이 예배의 날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아마도 그들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끝을 맺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성실함인가 무지함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자체를 무시하고 경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설교단으로부터 인간이 만든 제도를 위한 전통과 관습을 간청하면서, 그 주일의 첫날의 준수를 백성들에게 촉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치(代置)하는 것,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대치가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교회증언 7권, 141).

###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

진실을 알고 싶으면 그 기원을 찾아야만 한다고 종종 말해 왔다. 처음에 어떠했는가?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는가?

존 위클리프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성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높은 권위이며, 신앙의 기준이며, 종교, 정치, 사회생활에서 개혁의 토대가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천사들은 이 율법의 통치를 받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을 범하였으므로 타락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그 당시에는 율법을 기록해 두지 않았고 다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반복해 주셨다.

넷째 계명인 안식일은 에덴동산에서 제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삭제된 것은 없다. 십계명의 원칙은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으며 또한 그 특성은 거룩한 지위에 있는 무리의 상태와 부합되었다. 타락한 후에도 이 계명의 원칙은 변개되지 않았으나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해 주셨다.”(예언의 신 1권, 261).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다면, 무신론자나 우상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창조 이후에 모든 부조들이 그 날을 준수하였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의 신성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넷째 계명의 맨 처음 말은 안식일이 그 때에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신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이 큰 기념물을 파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자 전혀 노력하

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확실하게 사단의 밥이 될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336).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태양, 그대가 살고 있는 견고한 땅은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이요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분의 증인이다. 그것들이 비록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눅 16:17).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시대의 소망, 308).

###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보다 심지어 죽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런 헌신은 투쟁 없이는 보존되지 않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큰 우상에 절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경배하고 경배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너무 강해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거민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느부갓네살은 이전에 꿈에 나타난 신상의 설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만약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의 역할을 이해했다라면 세상의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하지만 슬프게도 느부갓네살은 그의 지식이 진리의 교훈을 배우는 대신 그의 자부심과 허영심을 키워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목적에서 바꾸어 놓았다.

“그의 우상의 높이와 아름다움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된 물질에 의해서, 왕은 오류와 거짓 교리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했다.”(영문시조, 1897.4.29).

모든 거짓 종교는 진리의 부패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과거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사이의 유사점을 관찰하는 것은 쉽다. 사단은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대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하려고 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 시대에 큰 시험은 안식일 준수에 있을 것이다. ... 경쟁적인 안식일은 두라 평지의 큰 금 신상처럼 높이 평가된다. 기독교도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은 그들이 만든 가짜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전 세계에 촉구할 것이다. 거절하는 자는 모두 압제적인 법에 처해질 것이다. 이것은 불법의 사람이 시행한 사단적 기관의 착취인 불법의 비밀이다.”(그리스도의 승리, 178).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을 존중히 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하실 것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충성된 종들을 인도하신 방식을 통해,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시험에서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 주시며, 하늘의 권위를 배반하는 모든 지상의 권세를 꾸짖으신다.

### 우리가 배워야 할 실례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 10:11].

우리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방법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일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 경험을 관찰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두라 평지에서 히브리 젊은이들의 경험에서 배울 교훈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비록 잘못이 없기는 하지만, 사단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질투와 종교적 편협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손에 의한 굴욕과 학대를 견디도록 강화될 것이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경배하는 자에게 특히 사람의 분노가 심해질 것이며, 마침내 보편적인 포고령이 이러한 자들을 죽임을 당할 자격이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 우리는 인간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

20세기에는 무신론 교육의 일환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반기독교 문학을 출판하고 널리 보급하였다. 특히 니콜라에 카우세스쿠의 독재 이전에도 루마니아에게는 더욱 그랬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직후, 나는 부쿠레슈티에서 우리 교회에서 온 매우 충실한 형제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의 이름은 스테판 옹구레아누였다. 공산주의 시대에 신자들이 겪었던 실생활 경험을 듣는 것은 특권이였다. 어느 날 교회의 연합회장으로 이 형제가 당국에 의해 불려가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종교 서적에는 왜 그 나라의 지도자의 초상화가 없는가 하는 추궁을 받았다. 모든 책들이 그의 사진을 1면에 실는 것은 의무사항이었다. 그러자 우리 형제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제발, 우리를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정부를 존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명 조례로 인정하지만, 인간에게 존경과 존경을 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다른 정부 정당에 따라 원칙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항상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해 왔다. 우리는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 해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였음이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 정부를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로 인정하며 그것에 대한 순종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신성한 의무라고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과 상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의 법률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교회나 국가가 말하였다는 것 때문에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세상의 유력자들의 면류관보다 높이 들려야 한다.”(교회증언 6권, 402).

### 시험의 때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 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때에는 금이 찌꺼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걸치레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 왔던 많은 별들이 그 때에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때에 자신들의 별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선지자와 왕, 188).

“모든 사람은 흑암의 권세들을 대면할 수 밖에 없다. 늙은 이들은 물론 젊은 이들도 공격을 받을 것인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것이 저희들 자신에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연극 무대에 선 배우들이며 쟁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리뷰 앤 헤랄드, 1883.9.25).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그분의 사업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대는 이 세상을 채워줄 자리가 있다. 우리 모두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주께서 그대에게 채우기를 바라는 자리를 충실하게 채워 준다면, 그분은 그대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그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

#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떠나시는 때



피터카이오헨 - 필리핀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알려진 기독교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1844년 이래 이 시대는 또한 대속죄일로 언급되어 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의 피로 간청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계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업의 두 번째 국면으로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히 8:1, 2].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 9:24]라고 말한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그렇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긴요하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9).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7:25].

우리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이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이런 진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5, 16].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의 죄로부터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야만 하고, 우리 영혼의 성소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해야 한다 [고후 7:1]. 왜 그런가? 와서 자복하고 그대의 마음을 낮추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의 팔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자복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손을 들고, 우리를 대신하여 명들고 상처받은 손을 보고 자복하는 모든 사람을 속죄하고 계심을

믿으라.”(엘렌 화이트 1888 자료집, 127).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라”는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떠나시면 아무도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를 바라보며 선지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단 12:1].

### 환난의 때가 올 것임

단 12:1을 유다서와 계 12:7과 비교하고, 살전 4:16을 요 5:25와 비교하면 우리는 미가엘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서실 때는 그분이 성소에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실 때이다. 계 22:11, 12. 그는 일어서서 복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마지막 일곱 재앙인 하나님의 진노가 환난의 때에 쏟아질 것이다.

주의 사자는 환난의 때를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계시중에 지성소로 옮겨졌고 거기서 ...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아직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때 나는 모든 인간들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지 않으실 것과 예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 입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물러나실 것이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진리를 거역한 자들 위에 부으실 것이다. ...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실 것인데 그 때에 비로소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불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 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초기문집, 36, 37).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 그의 진노를 쏟아 주실 것이라고 하신다. 그들이 진리를 거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이마나 손에 받을 짐승의 표이다.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시는 때에, 셋째 천사의 경고는 땅 거민들에게 주어진다 [계 14:9~11 참조].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첫째 천사가 요구한 대로 그들의 창조주 대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짐승을 경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증거로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7].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내릴 것이다** [계 14:9, 10 참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었다. 계시록의 기자는 그 무서운 재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계 16:2].” (각 시대의 대쟁투, 627, 628).

###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됨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떠나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아직도 최악에 대한 진정한 슬픔을 느끼기 시작할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자비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할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는 역사 전반에 걸쳐 가끔 발생했던 것처럼 혹독한 심판을 받을 때 참회할 악인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악하고 독한 헌데”로 고통받

고 있을 악인들조차도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으로 인해 “크게 태움에 태워진” 악인들조차도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고 알려준다[계 16:2~9].

악인은 환난의 때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기가 이미 끝났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죽음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의인과 악인을 건너거나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사악한 개인이 의로 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인은 악인으로 남을 것이고, 의인과 거룩한 자는 영원히 의인과 거룩한 자로 남을 것이다[계시록 22:11 참조].

이 세상의 은혜의 시기는 언제 마치는가? 이 사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엄숙한 선포가 바로 예수님의 진술에 따른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조사 심판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마쳐진다.”(각 시대의 대쟁투, 490).

###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음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성소를 떠나실 때 우리의 은혜의 시기가 마칠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나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언제 ...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을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고 애 쓰지 말 것이다. ...

언제쯤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빛을 받은 것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어온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대답은 오직 지금은 해가지기 전에 일해야 할 때이며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기별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

이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깨어 일하며 기다려야 할 때이다. ... 그러나 은혜의 기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라는 명령은 아무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쓴 어떤 인간의 입술에도 그런 기별을 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 총회에서 숨기기로 한 것을 인간의 혀를 통하여 선포하지 않으실 것이다.”(리뷰 앤 헤랄드, 1894.10.9).

이것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은혜의 시기의 일반적인 종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벧전 4:17] 우리 개개인의 은혜의 시기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성소를 떠나는 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때를 위한 시험하는 진리들을 결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은혜의 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현대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기가 끝날 것이다.

주의 사자는 설명한다: “시련의 때와 기회를 가졌던 자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께서 관용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말이 아니다. 그 때에 열한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2권, 16).

“하나님의 심판때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다. 주님은 부드럽게 그들을 바라 보신다. 그의 자비스러운 마음이 움직이시어 그의 손을 내어 뻗치사 아직도 구원하려 하신다. 한편 이때는 들어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이 닫히는 때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처음으로 진리를 듣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성경주석 [화이트주석] 7권, 979)

### 은혜의 시기는 의외로 갑자기 끝날 것임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막 13:35, 36). 깨어 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에 향

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가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단 5:27)라고 선고하실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491).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15).

###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의 시기

성서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에 대해 예언한다[참조: 암 8:11, 12].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근이 언제쯤이 될 것인가? 예언의 신은 그리스도가 성소를 떠난 후에, 은혜의 시기가 이미 끝난 후에, 그리고 전염병이 지구에 쏟아지는 동안 그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 계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재앙이 지상 거민들 위에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러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감미로운 자비의 음성은 더이상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성도들과 온 하늘이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관심을 쏟았으나 저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그들 앞에 있었다. 저들은 생명을 원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제는 죄를 도말하는 대속의 피가 없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죄인들에 대해 조금만 더 참으소서’라고 부르짖어 줄 동정 어린 구주가 없는 것이다. 온 하늘은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며 그들은 ‘다 이루었다’ 하는 두려운 소리를 들었다.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사라지자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하고 외치는 분명한 소

리를 들었다.”(초기문집, 281, 282).

### 두 번 다시 은혜의 시기는 없음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기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주님께서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미래의 본향에 우리를 적합하게 해 줄 품성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마지막 기회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 시험과 심사를 받을 것이다. 진리를 떠나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가는 자들은 두 번째의 은혜의 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 지상 천년 왕국은 없을 것이다. 만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준 후에도 그들이 진리를 저항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길을 막게 되면 그들은 결코 각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에 품성의 변화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세상을 지나갈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마지막 날 사건들, 236, 237).

### 환난의 때의 우리의 보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떠나고 은혜의 시기가 마치면,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이 이마나 손에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며, 그 일곱 가지 마지막 재앙은 자비심 없이 쏟아질 것이며,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임을 보았다.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재앙을 당할 것인가? 아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주의 사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는 결코 전에 없었던 것 같은 환난의 때를 보았다-예수께서 그것은 야곱의 환난의 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환난의 때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환난의 때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 나는 네 천사가 붙잡고 있던 사망의

바람을 놓아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기근과 질병과 검을 보았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온 세상은 혼란에 빠졌다.”(데이 스타, 1846.3.14).



### 우리의 유일한 안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은 환난의 때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능하신 분의 덮개다. 엘렌 G. 화잇은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초기문집, 43).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간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초기문집, 44).

이것은 환난의 때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우리가 재앙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에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 친다는 것은 진리에 정착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엡 4:14].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성경주석[화이트주석] 4권, 1161).

더구나 인침 받으려면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 어다 하였느니라” [딤후 2:19].

우리가 인침 받기 위해서는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다. [롬 7:13]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겔 9:4 참조].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 임금에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 14:30]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이것이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23).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른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교회증언 5권, 214).

인침 받는 조건과 늦은비 받는 조건은 동일하다.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말한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5). 그러므로 인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겨야 한다. 🙏

# 복스러운 소망

아벨 모랄레스 - 아르헨티나

「모체」 문화의 고대 통치자인 「시판」왕의 빈소가 있는 페루 「람바예끄」 시에 위치한 시판 박물관의 유명한 왕릉을 방문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 통치자는 서기 3세기 동안 그 나라의 현 영토의 북부를 다스렸다.

1987년, 한 전문가 팀이 남아메리카에서 20세기 이전의 주요 발견으로 인정받는 이 고고학적 유적지를 발굴했다.

「시판」왕의 미라가 된 몸을 보고 있으면 그의 사생활과 희망에 대한 약간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 그의 왕실의 복장은 죽음을 넘어 그의 영원히 지배하고 싶은 주제념은 욕망을 드러낸다.
- 그가 숭배했던 주요 신 「알 파크」의 다른 표현
- 해와 달을 상징하는 20개의 땅콩으로 만든 금은 목걸이, 즉 도달하고자 하는 어둠과 빛의 완벽한 영적 균형.
- 코, 눈, 치아, 귀마개와 같은 해부학적 형태를 보이는 그의 얼굴에 있는 조각들은 모두 고운 금으로 만들어져서 그의 얼굴을 불멸시키고 싶은 욕망을 나타낸다.

• 그의 아내, 두 후궁, 군단장, 파수막, 한 군인, 그리고 어린이, 한 마리의 개와 두 마리의 라마

(안데스 지방의 제물로 드리던 토착 동물)로 이해되는 장례 행렬을 묘사한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영적 소망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다. 즉 그의 물건들과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 헛된 소망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욘 2:8].

권력과 영원한 젊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판」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소망의 가장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영원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어리석음을 초래하는 사람들의 경우다:

“솔로몬의 보좌는 상아 보좌였다. 그 계단들은 정금이었으며 보좌에 오르는 양옆의 난간은 여섯 마리의 황금 사자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는 이 보좌에 앉았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 그의 바로 앞에는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그의 마당은 될 수 있는 대로 에덴 동산 비슷하게 꾸며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잘 선택된 나무들과 정원수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꽃들은 그 동산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들여왔다. 여러 가지 빛깔이 나는 깃털을 가진 새들이 감미롭게 노래하면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

로 날고 있었다. 화려한 의상과 장신구로 단장한 젊은 시녀들이 서서 그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술 마시고 노는 환락의 장면들, 음악, 스포츠, 각종 게임들은 그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 마련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왕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다. 그는 참으로 멋진 그의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 모습은 실망으로 일그러진 어두운 모습이였다. 방탕한 생활은, 한때 수려하고 지성으로 빛나던 얼굴에 그 자취를 남겼다. 그는 젊고 영리하던 그 솔로몬이 아닌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불행과 걱정으로 그의 이마에는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의 얼굴 구석 구석에는 성적(性的) 방종의 명백한 표식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그가 바라는 데서 조금만 빛나가도 야단을 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파손된 그의 신경과 흐트러진 그의 몸매는 자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는 그의 낭비된 삶을 가리켜, 행복을 좇아 다닌 실패한 삶이라고 고백하였다. 그의 슬픈 탄식은 이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며 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전 10:16~19 인용].

히브리인들의 일반적 식사 습관은 하루에 두 끼 먹는 것이었다. 그들이 가장 잘 차려서 먹는 때는 한낮이 좀 지나서 먹는 식사였다. 그러나 이방의 사치스러운 습관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왕과 왕자들은 밤 늦게 까지 잔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오전에 축제나 술 잔치를 가지면 나라의 위정자들과 공복들은 입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았다.

솔로몬은 그 타락한 식욕의 방종에서 자라난 그 죄악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필요한 개혁을 단행할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았다. 체력과 안정된 마음, 그리고 건전한 도덕성은 절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고 있었다. 대식(大食)은 술 취함에 이르게 하고 정도가 어떠하든 간에 부절제한 사람은 공무를 맡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엄청나게 먹는 잔치들과 시도 때도 없이 위장 속으로 마구 쏟아 넣는 음식물은 모든 신경 조직의 섬유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음도 우리

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솔로몬의 생애는 청년들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하나의 경종이 된다. 우리는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젖된 쾌락이 보내는 유혹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종종 보는 바로는 초기 생애가 모범적이었던 사람들이 죄에 매료되어서 길을 잃고 지족(知足)할 줄 아는 사나이다움을 회생시키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들은 한동안 원칙과 금지된 행동 노선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을 왔다 갔다 하지만 한때 의롭고 현명한 왕이었던 솔로몬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선한 결심에 비하면 유행하는 죄악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 마침내 입증된다. ...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상상으로 모리아 산에 서서 폐허가 된 이교의 제단들이 있는 기드론 골짜기 저 건너편을 바라보라.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그대들의 의지로 삼으라. 유혹으로부터 단호히 그대들의 얼굴을 돌리라. 죄악이란 돈이 많이 드는 방종이다. 죄 때문에 빨리 죽지 않는 사람들의 몸에 죄는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 현기증, 무력증, 기억 상실, 정신 착란, 가슴과 폐의 혼란 등이 건강의 법과 도덕률을 범한 죄에 신속히 뒤따라 온다.” (성경주석 [화잇주석] 3권, 1165).

### 희망을 갖고 살라!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사람들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댐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예상된 지형에는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 마을이 있었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다.

“이 계획의 실행은 아직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제 그대들의 집은 국가의 재산이니 그대들이 영원히 이 구역을 떠나야 하는 날까지 그대들은 이 구역을 계속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곳은 좋은 마을이었지만 그 무렵부터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수리

하거나 정원을 돌보지 않았고 한때 아름다운 마을이었던 곳이 비참한 마을이 되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들은 희망을 잃었다.

예언 공부를 중단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교회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갖지 못했다. 그들의 희망의 상실은 비활동적이고 비참한 삶을 초래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이 되어 왔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 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

옥중에서, 화형주에서, 교수대에서,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진리를 증거한 곳에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의 말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 중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였고, 따라서 재림시에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것을 초월하게 되었다.’”(각 시대의 대쟁투, 302).

“오! 주여 그 복된 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그 말은 사도 시대의 교회와 광야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다.”(각 시대의 대쟁투, 304).

예로부터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선포하여 그분의 교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도록 자극하였다. 더욱이 예언자들은 또한 모든 사람이 그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징조들의 윤곽을 그려준다.

### 소망의 징조들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요한은 재림 전에 나타날 첫째 징조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 [계 6:12]라고 기록하였다.

이 징조들은 19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났

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1755년에 일찍이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범위는 유럽의 많은 부분과 아프리카와 미국에까지 확대되었다.”(각 시대의 대쟁투, 304).

“해와 달이 어두워지리라는 예언의 둘째 징조는 25년 후에 일어났다. ... 이 예언은 1780년 5월 19일에 성취되었다. ...

닭들은 해에 올라가 잘 준비를 하고 가축들은 목장의 한 편 구석으로 몰려서 울고 있었다. 개구리가 울고 작은 새들도 저녁 노래를 불렀으며, 박쥐들은 밖으로 나와서 날아다녔다. 아직 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사람뿐이었다.”(각 시대의 대쟁투, 306, 307).

“밤중이 되자 암흑은 사라지고, 달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핏빛과 같았다.

1780년 5월 19일은 역사상 암흑일로 알려져 있다. 모세 시대 이후로 것처럼 극심하고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쳐 있었던 암흑은 볼 수 없었다.”(각 시대의 대쟁투, 308).

“1833년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려 주기 시작한 2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예수님께서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마 24:29]고 말씀하셨다. ...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의 유성(流星)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것은 지금껏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별의 떨어짐이었다.”(각 시대의 대쟁투, 333).

### 소망을 확인한 해석의 원칙들

“1840년에는 또 하나의 현저한 다른 예언이 성취되어 일반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한 유력한 목사인 조시아 리치는 오토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9장의 해석을 책으로 펴냈다. ...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이 된다.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國威)가 몰락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 조시아

리치, 영문시조 및 예언의 탐구자, 1840.8.1.

“과연 규명한 바와 조금도 어김이 없이 바로 그 때에 투르크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국가들의 보호를 받기로 승인함으로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건은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 이 일이 일반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밀려와 그 동역자들이 인용한 예언적 해석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된 동시에, 재림운동에는 놀라운 박차가 가해졌다.”(각 시대의 대쟁투, 334, 335).

###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가?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재림직전에 있을 타락 상태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세속적 업무와 향락을 구하는 일, 곧 사고, 팔고, 심고, 집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과 내세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세대에 살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권고는 아래와 같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닢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눅 21:34].”(각 시대의 대쟁투, 309).

영적 맹목, 탐욕, 배도, 탐식과 호색은 희망이 없는 삶의 확실한 결과, 즉 필연적으로 부주의하고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다. 나는 우리가 진정한 “복스러운 소망”이 나의 생애와 당신의 생애에 가져다 줄 대조적인 결과를 분석해 보기 바란다.

### 진정한 소망의 효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일 3:2, 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하게 설교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개종한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끌 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교만하고 자기주장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허영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착실하고 조심성 있게 되었다. 불경(不敬)한 자가 경건해지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방탕하던 자가 순결해졌다. 세상의 허영은 버려졌다.”(각 시대의 대쟁투, 461, 462).

사랑하는 자여, 만약 우리의 소망이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지구로 돌아오기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된 목표는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그 결과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일상생활에서 예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세상에 대한 그의 산만함과 함께 영혼의 원수를 우리 가운데에서 추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단은 구체적인 권한을 가진 악마들을 보내어 우리 주와 우리를 갈라놓는 악에 다양한 경향을 촉발 시킴으로써 마음을 장악한다.

### 분명한 악마들?

우리의 약점을 분명하게 공격하는 악마들과 관련하여 예언의 신의 몇 구절을 생각해 보자.

“태초에 죄 없이 창조된 악령들은 그 본성과 권능과 영광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봉사하는 자들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에 단합하여 있다. 그들은 사단의 반역에 가담하여 그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들의 동맹과 정부, 여러 가지 계급, 그들의 지혜와 교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기 위한 악의들을 알고 있다.”(각 시대의 대쟁투, 513).

“[사울]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났다. 그는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은 까닭에 분노하였다.”(부조와 선지자, 650).

예수께서 지구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器官)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시대의 소망, 36).

인용된 모습들은 매우 분명하다. 사단은 그의 요원을 조직하여 우리의 약점을 노략질하여 우리를 나태하게 한다. 내가 탐욕스럽고, 부정직하고, 이기적이고, 부절제하고, 방탕하고, 성급하고, 거짓말쟁이, 게으르고, 피상적이고, 허영심 많은 등, 분명히 그의 사악한 대리인들 중 일부는 나의 결점들 중 일부를 심하게 잡아먹도록 위임받고 있다. 옛말에 이르기를 “네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너를 이겨낼 것이다.”

### 어떤 소망이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된다. 예언의 신은 말한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 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시대의 소망, 38).

가룟 유다의 경우에서 조차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 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시대의 소망, 294).

궁극적으로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마리아]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시대의 소망, 568).

“그리스도의 팔은 인간의 비애와 타락의 매우 깊은 데까지 뻗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절제라는 이 두려운 악마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새 자녀 지도법, 401).

1927년에 잠수함 S-4는 멕시코 만에 침몰했다. 많은 배들이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구조 기동 중에, 전술 잠수부가 배의 금속벽에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모스 부호에 있는 메시지였다. 그는 암호를 해독하고 즉시 메시지를 전송했다. 잠수함 승무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어떤 희망이 있나? 어떤 희망이 있나?’ 그것이 이 세상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차례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엡 2:12].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3:3~7].

### 나에게 어떤 종류의 소망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에서 대다수의 교인들을 주시해보면 의문이 생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소망과 같은 경이로운 것이 될 것인가?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자비심을 낭비하고 있는가? 사도교회와 개혁자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었는가? 우리 생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돈을 벌기위한 열렬한 열심이 나의 개인적인 헌신을 대체했는가? 대중적인 교회가 되고자하는 소망으로 인해 현재의 질서가 끝날 미래에 그 엄숙한 날을 바라보고 있는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외치도록 하자: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 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사 64:1, 표준새번역].

형제자매들이여, 이 격렬한 소망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백성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기를 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특별한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흠 없는 행실과 견고한 믿음은

언제나 죄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는 견책이 되었다. 그들은 수효도 적고, 재산과 지위와 명예로운 칭호도 없었지만 그들의 품성과 교훈은 어디서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각 시대의 대쟁투, 46).

그러면 세상은 개혁 운동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3)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멘! 🙏



2019년 기도력

# 마라나타



엘렌 G. 화잇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 1:7.

“그를 찌른 자”(계 1:7),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민을 조롱한 자,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백성에게 대하여 심한 반대를 한 자들은 일어나 그리스도를 그의 영광 가운데서 볼 것이요 그 충성되고 순종한 그들에게 영예를 주시는 것을 볼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37).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석에서)가야바는 그의 오른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엄숙한 선서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을 때에 모든 귀는 듣고자 기울었고 모든 눈은 그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인성의 자태를 통하여 번쩍 거렸다.

그 광경이 제사장의 환상에서 사라졌다. … 그는 … 예복을 찢으면서 … 그 죄수가 참람된 것으로 정죄 받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증인을 더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정죄하였다(시대의 소망, 706~708).

유대나라 지도자들은 이렇게 그들이 택할 바를 택하였다. 그들이 기록한 바가 하늘 책에 기록되었는데 이 책은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자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본 책이요 또한 아무 사람도 펼 수 없는 책이다. 이 결정은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개봉하실 때에 그들 앞에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실물교훈, 294).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폭도들에 둘러싸인 한 죄수가 아닌 그를 볼 것이다. 그들은 그를 하늘의 임금으로 볼 것이다. … 그 때(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 당시의 재판정에서의 광경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건의 전말이 마치 불의 글씨로 기록된 것처럼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영문 시조, 1900.1.17).

10월 2일(수)

###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벧 후 3:10.

주의 날,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하늘에서 번개를 보내실 것인데 그것은 땅의 불과 합할 것이다. 산들은 용광로처럼 끓고 무서운 용암이 흘러내려 정원과 들, 촌락들과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다. 용해된 광석과 바위와 뜨거운 진흙을 강물에 퍼부을 때, 강물은 가마솥처럼 끓을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맹렬하게 거대한 바위들을 내뿜어 부서진 바위들을 땅 위에 흩을 것이다. 모든 강물은 마를 것이며, 땅이 진동하고, 도처에서 무서운 화산의 폭발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거민들이 지상에서 멸절될 때까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것이다”(영적선물 3권, 82, 83).

땅은 술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릴 것이며 작은 집처럼 옮겨질 것이다. 체질은 불에 탈 것이며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성경주석 5권, 1110).

땅의 내부에 숨겨 있던 힘이 폭발함으로 지각이 갈라질 것이다. 일단 터져나온 이 힘은 오랫동안 고용인들에게 박봉을 주고 많은 소득을 획득함으로 재산을 쌓아온 사람들의 재물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원고, 24, 1891년).

큰 재난의 때가 박두하였는데 그 때에는 생애의 모든 헛된 수고가 하루 동안에 휩쓸려 가버릴 것이다(교회증언 4권, 49).

인간의 생애에는 ... 큰 파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주에서 보존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파멸과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시 91:9, 10). 환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실 것이다(시 27:5). 그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보호자와 방패로 삼지 않을 것인가?(서신, 258, 1907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저택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세상의 쟁투를 벗어난 안식이 있다(리뷰 앤 헤럴드, 1897년 10월 19일).

10월 3일(목)

### 일곱째 재앙에 대한 생생한 실례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욥 38:22, 23.

나는 바이론 벨든과 사라 벨든 씨와 메이레시 자매와 함께 오스트랄리아의 프로팩스트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우리가 집회소를 떠날 때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 그 폭풍우가 너무나도 불길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땅아지를 몰았다. 우리가 거의 집에 다달았을 때 맹렬한 질풍이 우리를 쳤다. 계란만큼이나 큰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 그 우박들이 아주 맹렬하게 어린 땅아지들을 두드렸기 때문에 땅아지는 소스라쳐 놀랐다.

나는 “바이론 씨, 지금 곧 나가서 ... 말들에게 이야기 하시오. 그들을 때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고 알려 주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 제안에 뛰어내렸다. 나는 또 “메이레시 자매와 사라 자매도 내리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들도 내렸다. ... 그 다음에 나도 내렸다. 메이 자매와 사라 자매가 나를 도와 주었다. ...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어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 버리고 마차의 방석이 날아가 버렸다. 무거운 마차의 방석과 우산과 무거운 마차 덮개가 들판으로 불려 떨어져 사방으로 날고 있었다. ...

참으로 무서운 광경이었다. 메이레시 자매와 벨든 자매와 나는 모자를 바람에 날린 채 집에 도착하였다. ... 바이론 씨는 가엾게도 두려움에 질려버린 새 말과 함께 있었다. ...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

이 경험은 내가 마차 안에서 폭풍우를 당한 경험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었다. ...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부어질 때와 암흑과 무서운 어두움이 머리에 쓰는 수건처럼 하늘을 덮을 날을 생각하였다. ... 나의 상상은 주님의 강하신 음성이 당신의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실 때가 어떠할까를 상상하였다. ...

계시록 6장과 7장은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나타나 있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있다. 그들에게는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주님께서 세상의 거민들을 멸하시기 위해 앞으로 나가고 계셨다 ... 하나님의 재앙이 지상에 내려질 때 악한 자들 위에 무게가 한 달란트인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원고, 24, 1891년).

## 땅이 조물주로부터 도망함

“만군의 여호와와 분하여 맹렬히 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며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사 13:13, 14.

감감한 구름은 여전히 공중을 덮고 있으나 때때로 태양은 구름을 뚫고 마치 여호와와 원수 갚으시는 눈처럼 나타난다. 맹렬한 섬광이 하늘에서 방사되어 불꽃을 만든 보처럼 지구를 덮어 썬다. 무서운 우레 소리가 울리는 그 위에서는 신묘하고도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의 운명이 선고된다.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깨닫는다. 조금 전까지도 본체 만체하고, 교만하고, 도전적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포박하게 대접하기에 의기양양하였으나 이제는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떨고 무서워한다. 그들이 통곡하는 소리는 떠드는 소리를 헤치고 높이 들린다. 악한 귀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승인하고 그 권능에 전율하는 동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탄원하고 두려워 부복한다. ...

주위의 암흑에 비하여 그 찬란함이 사배나 증가된 밝은 별이 구름 사이에 나타난다. 이 별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보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암흑과 진노를 보인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자들은 이제는 안전하여 여호와와 은밀한 데 숨긴 것과 같다. 그들은 벌써 시험을 받고 세상과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대한 충성을 나타내었다. 죽음에 직면하여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그들은 돌연히 악마화한 사람들의 포박과 암흑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 방금까지 창백하고 불안에 싸여 초조하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이와 신앙과 사랑으로 빛난다. 이 때에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시 46:1~3)(각시대의 대쟁투, 637~639).

## 하나님의 율법이 하늘에 나타남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시 50:6.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그 좌우편에 있는 노란 듯한 암담한 천공과 비하여 그 영광스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천성의 영광은 그 열린 문에서 흘러 나온다(각 시대의 대쟁투, 637).

성전에서 두 돌비가 들어 있는 법궤가 나타날 것인데 그 돌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 두 돌비는 감추었던 곳에서 가져올 것인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긴 십계명이 보일 것이다. 지금은 법궤에 들어 있는 이 두 돌비가 진리와 하나님의 율법이 주장하는 바를 확신시켜 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성경주석 7권, 972).

신성을 모독하는 정신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와 때와 법을 변경할 만큼 위대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하늘의 보관소, 곧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두 돌비 위에 새겨진 원래의 십계명이 안전하게 들어있다. 세상의 어떤 주권자도 시은좌 아래 있는 거룩한 장소에서 그 돌비들을 이끌어 낼 능력이 없다(성경주석 7권, 972).

접혀진 두 돌비를 든 손이 하늘에서 나타난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시 50:6)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그 거룩한 율법, 번개와 불꽃 가운데서 생애의 안내자로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율법이 이제는 심판의 척도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그 돌비를 펼치자 불타는 붓으로 그려진 듯한 십계명의 교훈들이 나타난다. 그 글씨들이 너무나 뚜렷하므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기억은 일깨워지고 미신과 이단의 어두움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명백하고, 뚜렷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열가지 명령이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생생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짓밟아 온 사람들의 두려움과 낙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하나님의 율법의 원수들은 목사에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나 늦게 깨닫는다(각 시대의 대쟁투, 639, 640).

10월 6일(일)

##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이 선포됨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 24:36.

이 때에 하늘에서는 예수께서 임하시는 시일을 선포하며 당신의 백성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큰 뇌성소리와 같이 온 땅에 울렸다(각 시대의 대쟁투, 640).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쉬셨는데 그동안 하신 말씀은 온 세상에 울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와 마치 큰 뇌성처럼 온 세상에 울릴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시선을 위로 향한 채 서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엄숙한 광경이었다. 말씀을 마치실 때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하고 소리쳤다(초기문집, 285, 286).

그 수효가 14만 4천인 산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고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을 뇌성이나 지진으로 생각하였다(초기문집, 15).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시선을 위로 향한 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의 안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졌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때의 모습처럼 빛났다. 악인들은 그들을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언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각 시대의 대쟁투, 640).

그때 땅은 희년이 시작되어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초기문집, 35).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성도들)위에 비추었다. 그들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다. 모든 걱정과 근심의 흔적은 사라지고 각 사람의 안색에는 건강함과 아름다움이 나타났다. 그들을 둘러 싸고 있던 이방인 즉 원수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꺼꾸러졌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위에 비추이는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초기문집, 272, 273).

또한 나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으로 불타는 듯한 구름이 오는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후에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그 구름은 지상의 성도들에게 인자의 표징인 작고 검은 구름으로 처음 나타났다. 그 구름이 여러 날이 걸려 지성소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동안 사단의 무리들은 성도들의 발 밑에서 경배하였다(T.L.S.A. 1835년 4월 6일).

10월 7일(월)

## 황금같은 아침이 밝아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27.

은 세상이 어둠에 빠져 있더라도 모든 성도들의 거처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재림의 빛을 최초로 발견할 것이다(선지자와 왕, 720).

곧 동편에서 사람의 손바닥 반 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나타난다. 이는 그리스도를 두른 구름인데 멀리서는 암흑으로 가린 것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알고 지극히 정숙하게 그 구름이 땅으로 가까이 옴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광명하여지고 더욱 영광스러워져서 마침내 흰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에는 타는 불과 같은 영광이 있고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이제는 굴욕과 비통의 쓴잔을 마시는 “슬픔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천상 천하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 그를 따르더라”(계 19:11, 14). 무수한 천사의 무리는 성가를 부르면서 주님을 수행한다. 온 하늘이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 놀랍고 황홀하고 위엄스러운 광경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현세의 사물에서 초월한 것이어서 사람의 붓으로는 능히 묘사할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장려함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합 3:3, 4)도다. 산 구름이 더욱 가까이 올 때에 각 사람은 생명의 왕을 본다. 주의 거룩하신 머리에는 가시관이 아니라 찬란한 면류관이 씌어졌다. 그의 얼굴은 한 낮의 해와 같이 빛난다.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6)(각 시대의 대쟁투, 640, 641).

산 성도들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사 25:9)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위로 향하고, 그들 위에 비취는 의의 태양이신 분의 밝은 빛에 싸여서 그들의 구속이 가까웠음을 기뻐하며 신랑을 맞으러 앞으로 나갈 것이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367).

##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시 50:3, 4.

우리의 시선은 곧 동쪽으로 이끌렸다. 손바닥의 반 만한 크기 밖에 안되는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가 모두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을 응시하고 있을 때에 그 구름이 점점 가까이 와서 더욱 환하여지며 한층 더 영광스럽게 되더니 마침내 그것은 큰 흰 구름이 되었다. 그 밑 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 인자가 앉아 계셨다(초기문집, 15, 16).

이 구름은 멀리서 처음 나타났을 때 매우 작게 보였다. 천사는 그것이 인자의 징조라고 말하였다. 그 구름이 지상에 가까이 오자 우리는 그 위에 정복자로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위엄과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었다(초기문집, 286).

그분의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하여 어깨 위에 닿았으며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다. 그의 발은 불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의 오른 손에는 예리한 낫이, 그리고 왼 손에는 은나팔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는데 당신의 백성을 두루두루 살피셨다. 그 때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자들의 얼굴은 흠빛으로 변하였다. 이에 우리는 모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나의 옷은 흠이 없는가?”하고 소리쳤다. 그 때 천사들은 노래하기를 그치고 잠시 두려운 침묵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으며 기쁨이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여졌다. 그리하여 천사들은 음조를 더욱 높이 올려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동안 그 구름은 지상으로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하였다(초기문집, 16).

땅은 그분 앞에서 떨었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 갔으며 모든 산과 섬들은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초기문집, 286, 287).

## 땅의 토굴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 2:19.

숨은 사람들은 여호와와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적의감 때문에 흩어졌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세력 아래 압박을 당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와의 율법에 충성하고 순종한다는 이유로 원수들이 폭력을 가했으므로 토굴속으로 쫓겨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들에게 바로 징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밀한 피신처였던 토굴들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는다. 대담하게도 반역을 행했던 사람들은 계 6:15~17에 기록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로 이 토굴들에서 그들을 거스리는 증거물로서 글과 출판물로 된 진리의 성명서를 발견한다. 양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한 목자들은 다음과 같은 비난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진리를 멸시한 것은 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폐하여졌고, 속박의 멍에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도 너다. 내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진리를 갖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거짓 교훈들을 말한 것도 너다. 우리 영혼들의 피는 너의 성직자의 옷에 뿌려져 있다. … 이제 너는 나의 영혼을 위해 속죄의 땀가를 치룰 것인가? … 성경 말씀을 그릇 전하고 우리가 순종했더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었을 진리를 거짓말이라고 한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유린하고, 그분의 기념물을 무너뜨리고 발로 그분의 목장의 먹이를 짓밟은 자들에게 복수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에는 슬피 탄식해도 아무 쓸 데가 없을 것이다. 거짓 목사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갖고서도 극기와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안다. 바위들과 산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분노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그들을 숨기지 못한다(서신, 86, 1900년).

##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 3:20, 21.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을 영접하는 구름을 보았다. 제자들과 같이 걷고 담화하고 기도하신 바로 그 예수, 그들과 함께 떡을 떤 후수 위에 뜬 그들의 배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날 그들과 함께 애써 감람산에 올라 오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바로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것을 천사들은 그들에게 확실히 말하였다(시대의 소망, 832).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인성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다. … 예수님께서 영광과 승리와 귀인의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 오시는 때에 그와 같은 인성이 나타난다(하늘에서, 358).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뛰어난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닌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승리에 베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분을 호위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가시면류관 대신에 영광의 면류관 곧 면류관 중의 면류관을 쓰실 것이다. 또한 낮은 자주색 옷 대신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막 9:3) 흰 옷을 입으실 것이다. 또한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계 19:16)라는 이름이 씌어질 것이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367).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 가실 때의 갈릴리 사람들처럼 기다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늘을 쳐다보는 동안 온 하늘은 텅 빌 것이다. 그때 거룩한 사람들과 온유함의 모본이신 분을 온전히 따른 사람들만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열에 넘쳐 기뻐하는 가운데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하고 외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인바 그 나팔소리에 티끌 가운데서 잠자던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웃입고 “승리로다 사망과 음부를 이겼도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초기문집, 110).

## 재림시의 심판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딤후 4:1.

심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그분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에 각 사람의 사건이 결정되어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때 죄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아주 끔찍스러운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61).

어떤 인간적인 언어들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의 재림의 광경을 묘사할 수 없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영원 전부터 입으셨던 빛의 의복을 입고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분의 길을 호위할 것이다. 나팔소리가 울리고, 잠자는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부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귀에 들릴 것이며, “무덤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 나올 것이다.”

“그 앞에 모든 나라가 모일 것이다.” 인간을 위해 돌아가신 바로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고” “또 인간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요 5:22, 27)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을 바라보는 그날이 어떠한 것인가!(리뷰 앤 헤럴드, 1899년 9월 5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각성이 생길 것이다. 이기적인 관심과 세속적인 명예를 구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로 돌아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계시자께서 “그를 인하여 애곡”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말한 자들이다. …

“그를 찌른자들”이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을 찌른 자들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악한 말을 하고 그릇되게 행동함으로써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영문시조, 1903년 1월 28일).

## 예수님을 찌른 자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막 14:62.

그들(유대인 지도자들)이 인자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옷을 입고 계시던 그분에 대한 기억이 번쩍 떠오른다.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큰 배도의 편에 몰려 들었던가를 기억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장면들이 매우 뚜렷하게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그들을 죄의 오점으로부터 구하시고자 낮추셨던 겸손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그들 앞에 떠오른다.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당신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도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괴로와 하시던 그리스도를 본다. 초청과 간청과 부드러운 염려의 어조 가운데서 들리는 그분의 음성이다. 다시 그들의 귀에 울리는 것 같다. 그들 앞에는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이 나타나며 그들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는다. 그들은 다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는 빌라도의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바라바가 예수님 곁에서 있고, 그들에게는 무죄한 한 사람을 택할 특권이 주어졌던 재판정에서의 수치스런 장면을 본다. 그들은 다시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하는 빌라도의 말을 듣는다. 그들은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하는 대답을 듣는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라”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하는 대답이 나온다.

그들은 다시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희생제물 되신 분을 본다. 그들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하며 외치는 크고도 의기양양한 목소리들을 듣는다. 그들은 이제 갯세마네 동산도, 재판정도, 갈바리의 십자가상도 아닌 곳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분의 치욕의 흔적들은 사라져 버렸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 곧 그들이 침을 뱉었던 얼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뺨을 치던 얼굴을 바라본다. 이제 진리는 그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리뷰 앤 헤럴드, 1899년 9월 5일).

## 악인들이 서로 죽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겔 38:21.

이 때에 악한 자들은 매우 분통해 한다.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나 동포에게 대하여 그의 무를 게을리 행하고 죄를 범한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신 것에 대하여 마땅치 않게 하는 것이요 그 범한 죄악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온 힘을 다하여 항쟁할 것이다. ...

이 때에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정당히 유지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또한 그들은 공정하고 의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해 온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경계를 버리기 때문에 무수한 악행, 불화, 증오, 불법의 근원이 열려 드디어 온 세상은 싸움의 구렁텅이와 부패의 웅덩이가 되고 말았다.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떠나지 아니한 자들이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 불순 불충하던 자가 그 영구히 잃어버린 영생을 이 때에 얼마나 갈망할 것은 도저히 말로 다 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 재능과 변설로 인하여 승배를 받던 인물들도 이제는 사태의 진상을 깨닫는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지금까지 모멸하던 충성된 성도들의 발아래 꿇어 엎디어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한다.

이 때에 사람들은 지금껏 속은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서로 상대자에게 자기를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꾸짖고 욕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누구나 다 소리를 합하여 목사들에게 혹독한 비난을 한다. 이 불충실한 목사들은 교묘히 말하여 청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기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게 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앞에서 자신들이 속인 행위를 고백한다. 이 때에 대중은 분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것도 결국 너희들 때문이구나!”하고 부르짖으며 그 거짓 목사들에게로 달려 든다. 진에는 그들을 찬탄하여 마지 않던 자들이 이제는 무서운 저주를 퍼붓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 대적들을 멸하는데 사용된다. 도처에 쟁투와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각 시대의 대쟁투, 654~656).

## 어린 양의 진노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 6:15, 16.

경멸과 조롱은 그치고 거짓된 입술은 침묵에 빠진다. “군인의 갑옷과 피묻은 복장”(사 9:5)으로 싸우는 전쟁의 소동은 그친다. 이제는 기도와 통곡과 슬픔의 소리 밖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다. 조금 전까지 조소하던 자가 “진노의 큰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하고 부르짖는다. 악한 자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거절한 주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산의 바위 아래 묻혀 죽기를 애원한다.

죽은 자의 귀라도 꿰뚫어 듣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그들은 안다. 얼마나 자주 그 애소하는 듯한 부드러운 주의 음성이 그들에게 회개를 청하였던가? 얼마나 자주 친우로 형제로, 구주로서의 감동적 애원을 발하셨던가?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오랫동안 청한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겔 33:11)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을 괴롭게 하고 가책을 받게 하는 것은 없다. 그 음성이 차라리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의 소리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잠 1:24, 25)도다. 그 음성은 그들이 씻어버리려고 힘쓴 기억 곧 그들이 경멸히 여긴 경고, 거룩한 부르심, 경하게 여긴 특권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일으킨다. …

진리를 거절한 모든 자는 양심이 각성되고 그 거짓된 생애에 대한 추억이 다시금 생각나서 번민할 것이니 그 때에 그들은 뉘우치나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 같이”(잠 1:27)이르는 날의 후회는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 백성을 멸하려던 자들은 이제 그들 위에 있는 영광을 본다(각 시대의 대쟁투, 642, 644).

## 하나님께서서 아마겟돈에 개입하심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렘 25:31.

이미 6천년 간을 두고 대쟁투는 계속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을 경고 계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자의 권세와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으니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사단의 군대에 참가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밝힐 때가 이르렀다. 이제 싸움은 다만 사단 뿐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 악인들을 칼에 붙이심”이라.

이에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겔 9:1~6)에는 한 표가 찍히는 것이다. 일찍 에스겔이 본 계시 가운데서 성을 순행하며 치는 자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사멸의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부터 시작하더라”(사 9:1~6)하였다. 이와 같이 멸망은 백성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곧 거짓의 파수꾼이 먼저 격멸을 당한다. 동정을 받거나 그 재앙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아이나 부녀가 다 멸함을 받을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사 26:21). … 그리하여 그들이 피차 싸우고 또는 궁핍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 땅위의 악한 주민들—제사장과 지배자와 민중—은 모두 죽게 되는 것이다. “그 날에 나 여호와가 살륙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렘 25:33)(각 시대의 대쟁투, 656, 657).

## 마지막 싸움의 성격

“나 여호와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냄은”  
렘 50:25.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뜻대로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자연의 세력 즉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시 148:8)을 소환하신다. 이교도인 아모리인이 당신의 목적을 저항하려고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셨다. 우리는 세상 역사의 최후의 장면에서 일어날 보다 큰 전쟁에 대하여 듣는데 그 때에는 “여호와께서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렘 50:25)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기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욥 38:22, 23)하신다.

계시록 기자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되었다”고 선언할 때에 일어날 멸망을 묘사하여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계 16:17, 21)다고 말하였다(부조와 선지자, 509).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전쟁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97년 10월 19일).

악의 세력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타나게 된다(성경주석 7권, 983).

만군의 주재께서 그 싸움을 지휘하시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성경주석 7권, 982).

그 옷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쓴 분께서 흰 말을 타고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를 이끄신다(성경주석 7권, 982).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 같이 흔들리”겠고 “하늘이 두루말이 같이 말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히 12:26; 사 24:20; 34:4; 호 3:10; 욥 3:16) (시대의 소망, 780).

##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 24:44.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다고 가정해 보자. 누가... 그분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하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연합하고 하늘 임금의 자녀들인 왕족들과 조화를 이루어 살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과 화목하였는가?... 그대는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대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사람들로서 그대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 있는가? 매일의 생애에서 실천하지 않는 공언은 무가치함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그대로 아신다. 우리는 왕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그대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사 25:9)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더욱 높이 올라오라 이 세상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였다. 너는 내 뜻 행하기를 즐겨하였다. 이제 너는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된다면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혼 예복을 입게 될 것인가?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이나 흙이나 그런 것이 없을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빨고 다림질 할 때, 곧 우리가 품성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할 때이다.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말하였다. ... 우리는 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인가?...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탄원한다. 그리하면 투쟁하고 노력한데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주에는 모든 사람이 보상 곧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면류관을 원한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얻는 것을 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여, 아름다운 왕을 뵈기를 원한다(하늘에서, 356).

## 의인들의 일반 부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사 26:19.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싸여 구름을 타고 내려 오신다. 주의 앞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같이 되고 땅은 진동하며 산과 섬들은 그 자리를 옮긴다. …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우레소리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킨다. 주께서는 의인의 무덤을 보시고 그 손을 하늘로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신다. 온 땅 위의 죽은 자들이 이 음성을 들을 것인데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 것이다. 이 때에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로 울린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불멸의 영광을 입고 나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한다. 그리하여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함께 소리를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합성을 외칠 것이다.

이 때에 무덤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갈 때의 키와 같은 키로 나온다. …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젊음의 활력과 원기를 가지고 부활한다. … 그리하여 피로 더럽혀진 추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몸도 완전히 아름다운 썩지 아니 할 몸이 되고 모든 흠과 누추함은 무덤 가운데 내 버리는 바 된다. …

이 때에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죽지 않게 되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각 시대의 대쟁투, 641, 644, 645).

어린 아이들은 먼지 투성이인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즉시 그들의 어머니의 품으로 날아갈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2권, 260).

죽음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친구들이 연합하여 결코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각 시대의 대쟁투, 654).

## 잠자는 성도들의 승리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8, 29.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는 첫째 부활 때에 그분께서 사신 소유물들을 불러 내실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소리로 나올 승리의 때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께 그 이름이 알려진 귀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 그들은 생존하는 동안 함께 거하였던 구주의 능력으로,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부터 이끌어 냄을 받는다(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59).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고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처소에 다시 울릴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자는 모든 성도들은 깨어 그들의 감옥을 떠날 것이다. 그 때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받은 성품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진정한 위대함과 관련시켜 줄 것이다(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59).

지금 잠들고 있는 성도들이 부활의 아침에 얻을 승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는 무덤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멸로 관을 씌우실 것이다(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59).

거기에는 부활한 무리들이 서 있게 된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생각은 죽음과 그 격렬한 고통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생각은 무덤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한다. … 그들은 거기에 섰다가 마지막으로 불멸의 옷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자 올라간다. … 그 때 천사들의 합창대는 승리의 합창을 하며 양쪽 옆의 천사들도 그 노래를 이어 부르며 구속 받은 무리들도 마치 그들이 지상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 합창에 참여한다. 아! 얼마나 훌륭한 음악인가! 거기에는 조화가 되지 않는 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음성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 합당하도다”하고 선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수고하신 결과를 보시고 만족해 하신다(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59).

## 부활의 신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 19:25~27.

비록 부활한 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와 똑 같은 물질이나 원소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우리의 개성과 동일성은 그대로 보존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불가사의한 일들은 인간에게는 하나의 신비이다. 인간의 정신과 품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대로 보존된다. 부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품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때에 죽은 자를 불러 내시고 생명의 호흡을 다시 주실 것이며, 마른 뼈들에게 다시 살라고 명하실 것이다. 죽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겠지만 병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아무 흠이 없는 모습일 것이다. 각자의 얼굴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날 것이다. 따라서 친구들이 서로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몸을 이루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물질의 원소들을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법이 자연에는 없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몸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밭에 뿌려진 곡식 알갱이의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설명하였다. 파종된 알갱이는 썩었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곡식 낱알이 나온다. 썩은 낱알 속에 있는 자연의 원소가 결코 그전 것과 똑같이 재구성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에다 자기를 기쁘시게 할 만한 형체를 주신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재료가 쓰여질 것이다. 이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출생이기 때문이다.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다(원고 76, 1900).

그(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죽을는지 모르나 그 가운데는 구주의 생명이 있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하시려고 그들이 이생에서 그분과 함께 되는 위대한 방법을 간직하고 계신다. …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일부로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신성을 가지신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리뷰 앤 헤럴드 1901년 1월 18일).

## 영생은 지금 시작함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일 5:11.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부활의 한 예증이었다(영문 시조, 1878년 6월 18일).

그리스도인은 죽을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901년 10월 1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명기된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영생을 말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이 생명을 갖고 계셨다. 육적인 생명은 누구나 받는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받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하거나 불멸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이 생명을 그분에게서 취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생명)를 …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요 10:18)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는 독창적이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데서 기원하지 않은 생명이 있었다. 인간에게는 이 생명이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영문시조, 1897년 4월 8일).

그분(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쓰고 계신 동안에 당신의 생명을 전지전능하신 분께 의존하셨다. 인성을 쓰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인성을 붙잡으셨다. 그러므로 인간 가족의 각 사람도 그렇게 할 특권이 있다. …

만일 우리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면 …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스러운 연합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영문 시조, 1897년 6월 17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시대의 소망, 388).

##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것임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전 13:12.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 본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알아 볼 것이다. 그들이 죽을 당시에는 혹 기형이거나 병들었거나 흠이 있었을지라도 완전한 건강과 균형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 가운데서라도 그들의 동일함은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 빛나는 얼굴로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 모습을 알아낼 것이다(시대의 소망, 804).

구속받은 자들은 고상하신 구주께서 관심을 갖도록 인도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얼마나 복된 대화가 될 것인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더니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귀중하신 구주를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도록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나는 이교도의 나라에 살던 이교도였습니다. 당신은 친구들과 안락한 집을 떠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나는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할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실망이 나의 영혼을 불신 속으로 몰아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을 내게 보내셔서 소망과 위로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하여 음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서 영적 필요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슬픔을 동정하였고, 나의 멍들고 상처난 영혼을 회복시켜 나를 구하시고자 뻗혀진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도록 하였습니다. ... 나는 지금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예수님 계시는 곳에서 살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짐을 졌던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기쁨은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 될 것인가!(오늘의 나의 생애, 353).

##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딤후 2:13.

예수님께서서는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당신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고귀하신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즐기며 항상 살 것이다. 나의 가슴은 그 즐거운 광경에 기뻐 뛴다. 우리는 거의 본향에 이르렀다. 나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될 것을 인하여 매 순간마다 기뻐한다. 나의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한다. 예수님에게는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일용할 것이 넉넉히 있는데, 왜 우리는 낯선 땅에서 양식 때문에 죽거나 굶어야 하는가? 나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고자 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훌륭한 소망을 갖고 있다. 그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간다. 그것은 고통 당할 때 위로해 주며, 고민할 때 기쁨을 주며, 우리 주위에서 우울한 것을 쫓아내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멸과 영생에 이르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 세상의 재물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순간적인 세상의 재물보다 탁월한 불멸의 유업 곧 영원하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재물을 붙잡게 해주기 때문이다. ...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힐 수도 있다. 그러나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님의 음성이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을 부르실 부활의 때까지 계속 남아 있다. 우리는 그 때에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온 분을 알고 있다. 우리는 헛되지 달려가지 않았고, 헛되지 수고하지 않았다. 우리 앞에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달려간데 대한 상급이며, 만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면 분명히 얻게 될 상급이다. ...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데, 왜 그 근원에서 멀리 떠나 가는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번성하도록 왜 와서 그 물을 마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토록 왜 세상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가? 우리에게는 세상보다 더 좋은 이야기하고 생각할 것이 있다. 우리는 하늘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오,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흠없는 품성에 거하도록 하자. 또한 바라봄으로 우리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함을 받을 것이다.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의 신뢰하라(하늘에서, 352).

## 의인들의 승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 17.

곧 크고 하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과거 어느 때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고 계셨다. 처음에는 구름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으나 구름이 땅에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자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잠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켰고 멸망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졌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되었고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병거 안으로 끌리어 올라갔다. 아래쪽에는 바위가 있었다. 병거가 위로 올라갈 때 바위들은 “거룩하다”하였고 날개들도 움직일 때마다 “거룩하다”하고 외쳤으며 그 구름 주위를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진능하신이시여!” 하고 함께 소리를 높였다. 구름 위에서 성도들도 “영광!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초기문집, 35).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유리바다를 향하여 7일간을 올라갔다. 이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 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금 거문고와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를 주셨다.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 중의 어떤 이는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썼으나 어떤 이의 면류관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무거운 정도로 별이 많이 달려 있었으나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면류관에 아주 만족해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초기문집 16, 17).

인간의 귀에 울린 어떤 음악보다도 풍부한 음성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350).

## 땅에 사람이 없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렘 4:23~25.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말끔히 없어진다. 곧 주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의 찬란한 영광으로 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 가시고 이 세상에는 주민이 없어진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흠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사 24:1, 3, 5, 6)리라.

온 땅은 황량한 폐허와 같이 된다.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와 촌락의 자취, 뿌리채 뽑힌 수목, 또는 바다에서 튀어나오고 땅이 갈라져 솟아 오른 바위들이 땅의 표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넓고 큰 동굴들은 산악이 그 기초로부터 파멸된 것을 표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 시대에 행한 속죄일의 최후의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치어 속죄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는 바 되면 아사셀의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와 앞에 끌려 나왔는데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레 16:21)었다. 이와 같이 하늘 성소의 속죄사업도 완결되는 때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의 위에 두는 바 되고 그들로 범죄하게 한 모든 죄악의 책임은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언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57, 658).

## 사단이 결박됨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1, 2.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사단의 간힘과 땅이 황폐하고 혼돈한 상태에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태가 천년 동안 존속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과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 말한 후에 그는 다시 다음과 같이 계속 예언하였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계 20:1~3).

여기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암흑한 상태로 되는 것을 표시한 것이니 그것은 다른 성경 구절에 의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다. 태초의 땅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창 1:2)다 라고 기록되었다. 예언은 땅이 얼마 만큼 이러한 상태로 돌아갈 것을 말한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앞에 있을 하나님의 큰 날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도다”(렘 4:23~26).

여기가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일천년 간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사단은 지구에만 제한되어 일찌기 타락한 일이 없는 다른 세계의 주민들과 접근하여 유혹하거나 괴롭게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그가 결박을 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하는 말이다. 그의 권세를 행사할 생존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니 곧 그가 여러 세기 동안 더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삼던 기만과 파괴 행위를 이제는 전연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58, 659).

## 가족들이 다시 만남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갇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와 같이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렘 31:16, 17.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한 무리의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옹위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으실 것이다. 가족이라는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시대의 소망, 632).

하나님의 날은 세상이 경건한 어머니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

심판 때가 이르러 책들이 펼쳐질 때, 위대하신 재판장의 “잘하였도다”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이 승리자들의 이마에 씌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면류관을 치켜 올리고 그들의 어머니를 가르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의 저의 전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기도는 저의 영원한 구원에 축복이 되었습니다”(영문 시조, 1910년 10월 11일).

부모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면류관과 옷과 수금을 바라본다. 기대와 두려움의 날들은 끝났다. 눈물과 기도로 뿌린 씨앗은 헛되이 뿌려진 것 같았으나 그들은 마침내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어 들인다. 그들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다(영문 시조, 1886년 7월 1일).

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열렬한 기대를 품고 심사숙고했으나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었던 구원을 얻었으니 … (각 시대의 대쟁투, 64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동무가 되시었고 친밀한 친구가 되시었다. 저들은 하나님과 긴밀히 접촉하여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저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서 반사되었다. 이제 그들은 위엄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 한다. 그들은 하늘과 서로 사귄 준비가 이미 되어있으니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이미 하늘이 있기 때문이다(실물교훈, 421).

## 충성된 자들을 위한 면류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7, 8.

주님께서서는 진실된 자들과 솔직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때 기쁨으로 그들을 바라보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면류관을 만드는 일에 천사들이 고용되며 이 별이 박힌 면류관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과 빛을 반사할 것이다(교회증언 5권, 96).

하늘의 사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 그리고 그대를 위한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그대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라. 그대의 주님을 평안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 준비를 갖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천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62).

구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좋아하고, 갈망하는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영광의 존귀와 불멸로 면류관을 쓰게 될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대는 세상의 영광이나 위인들의 훌륭한 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곧 티끌로 돌아가버릴 것이다. 나는 영원한 영광, 불멸의 영광,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광과 세상 어느 군주의 머리에 씌어졌던 면류관보다 더 귀중한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리뷰 앤 헤럴드, 1869년 8월 17일).

그 날에 구속 받은 자들은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황금으로 된 수금을 타면서 왕과 그분의 승리의 기념품들인 자들 곧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을 환영할 것이다.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 그분께서는 구속하신 자들 곧 고통과 자아희생으로 이루어진 당신의 사명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 해 주는 자들을 동반하시고 하늘 궁정에 들어가신다(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62).

##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면류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 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약 1:12.

내가 보니 심히 많은 천사들이 성으로부터 찬란한 면류관들을 가져 오는데 이것은 각 성도들에게 줄 것으로 그 면류관들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들을 찾으실 때에 천사들이 그 면류관들을 성도들의 머리위에 씌우셨다. 같은 방법으로 천사들이 거문고를 가져오니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들을 또한 성도들에게 주셨다. 지휘하는 천사들이 먼저 한 곡조를 타니 모든 음성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렸고 모두의 손은 쉼새 좋게 거문고의 현을 탔다. 그 음악은 아름답고 완전하였다. ...

그 성 안의 모든 건물은 눈에 새롭고 즐거운 것 뿐이었다. 그들은 각 곳에서 찬란한 영광을 보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보시자 그들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분께서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시선으로 그들을 주목하시면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나는 내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 이 화려한 영광은 너희가 영원히 누릴 것이다. 너희의 슬픔은 지나갔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 생명나무에는 가장 아름다운 과실이 맺혀 있어 성도들은 마음 대로 그것을 따 먹을 수가 있었다. 그 성 안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 나왔다. 이 강 좌우에는 생명 나무가 있고 그 두 언덕에는 먹기 좋은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다. ...

사람의 언어는 너무나 빈약하여 하늘의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나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과 훌륭한 영광에 정신이 팔려 붓을 던지고 “아! 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사랑인가?”하고 부르짖었다. 아무리 고상한 말일지라도 하늘의 영광이나 비할데 없이 깊은 구주의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다(살아남는 이들, 413, 414).

## 우리의 구속이 가까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눅 21:28.

그리스도의 강림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대쟁투는 끝나가고 있다.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왔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다.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은혜의 시기는 빨리 지나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 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으로나 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기별이 진지한 경고의 말로 발하여지도록 하라. 각 곳에서 남녀들을 권고하여 회개하고 장차 이를 진노를 피하도록 하자. …

주님께서는 머지 않아 올 것인데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그분을 맞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할 것을 결심하자. 우리는 슬피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며 언제나 우리앞에 주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 그분께서는 머지 않아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분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대면하고, 또 영접을 받는 일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나 우리의 소망은 아직도 희미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왕을 뵈기만 해도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본향으로 가자!” 하고 크게 외쳐야만 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당신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데리고 가실 때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 …

우리는 우리의 구주께서 돌아오실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과연 그분의 약속은 분명하다. 머지 않아 우리는 약속된 본향으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 나오는 생수의 강 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품을 완성시키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섭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회복된 에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구속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우신 면류관을 그분의 발 밑에 던지고 황금으로 된 수금을 타므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대한 찬양으로 온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교회증언 8권, 252~254).

## 상급이 그분에게 있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사업은 곧 마칠 것이며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성도들의 상급 곧 불멸의 유업을 보았으며, 진리를 위해 가장 많이 참고 견디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하늘은 너무나 값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교회증언 1권, 381).

다하지 못한 의무, 나태, 이기심, 속임, 기만, 정로에서 벗어난 일 등이 날마다 기록된다. 마지막 심판의 재료로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쌓이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시고자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 때 어떤 일이 드러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생애의 행적이 역사의 페이지에 드러날 때 얼마나 당황하는 표정을 지을 것인지!(교회증언 2권, 160).

모든 선행과 악행,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진 감화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곧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에게 나타난다. 또한 행동을 일으키게 한 동기에 따라서 보응이 있을 것이다(교회증언 5권, 520).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깝고도 촉박해 있다. 일할 시간은 단축되어 가고 있으며 남녀들은 멸망해 가고 있다. …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우쳐 멸망해 가고 있는 세상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개심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대들에게 대한 나의 기별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대들의 등을 준비하여 진리의 빛이 길과 산울가로 비쳐 나가도록 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다는 경고를 받아야 할 세상이 있다. …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지고 거칠은 정신이 사업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행할 준비를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동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열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할 것이다(교회증언 9권, 105~108).

##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결박당함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 6.

땅은 황폐한 광야처럼 보였다. 지진으로 허물어진 도시들과 마을들은 무더기같이 쌓여 있었다. 산들이 자리를 옮겼음으로 큰 동굴이 생겼다. 바윗 조각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큰 나무들은 뿌리가 뽑힌 채 넘어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천년동안 거할 집이다.

그는 여기에 갇혀서 황폐된 지상 여기 저기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의 반역의 결과를 볼 것이다. 천년동안 그는 자기가 뿌린 저주의 열매를 즐길 것이다. 지상에 홀로 갇혀서 그는 타락하지 않은 자들을 유혹하여 괴롭히기 위하여 다른 혹성들을 돌아다닐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사단은 극도로 고통을 당한다. 그는 타락한 이래 악한 계교를 끊임없이 활용해 왔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그의 타락 아래 자기가 행한 역할들을 회상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미래를 떨림으로 기다리며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그가 저지르게 한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수한 악기 소리와도 같은 승리의 합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사단에게 고통과 유혹을 당할 염려가 없으며 다른 세계에 있는 거민들도 그의 존재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었다(초기문집, 290).

사단이 이와 같이 간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선지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사단을 상징함)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흠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치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고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사 14:3~6)하였다(각 시대의 대쟁투, 660).

## 우리를 지켜 준 천사를 만날 것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 91:11.

영원한 빛에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하게 나타나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보호되고 중재함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관계된 사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들은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고 길가는 나그네의 복장을 하고 사람에게 왔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가정에서 우대를 받았고 해저문 길을 가는 행인을 인도하는 일도 하였다. 그들은 강탈하는 자들의 의도를 꺾고 파괴자의 타격을 물리쳤다.

비록 이 세상의 위정자들은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천사들은 그들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된 일이 적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의 눈은 그들을 보았고 사람들의 귀는 그들의 호소를 들었다. 회의실과 법정에서 하늘의 사자들은 박해와 압제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변호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학대와 고난을 주려는 목적을 격파하고 악을 저지하였다. 하늘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보여질 것이다.

모든 구속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천사들이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자기의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덮어 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 하고 무덤을 지키고 부활의 아침에 첫번으로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로 더불어 말하고 자기 개인의 일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끼쳐준 하늘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얼마나 흥미 있는 일이 될 것인가!(교육, 304, 305).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 빠질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동무를 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성경의 페이지에서 그는 인류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큰 사람들로 더불어 교제하고 또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벧전 1:12) 제목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때에 그는 천사들로 자기의 동무를 삼을 수 있다(교육, 127).

##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됨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 25:23.

예수님께서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에게 충실하였던 자들을 환영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게 하신다.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뇌와 굴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영혼들을 그 영광의 나라에서 보시는 것이다. 또한 구속을 얻은 자들도 그들의 기도, 수고,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인도된 자들을 그 축복받은 무리 중에서 보게 될 때에 주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다. 그들이 그 크고 흰 보좌의 주위에 모일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도한 자들을 보고 그 인도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이들을 인도하고 그 다른 이들이 또한 다시 다른 이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다 안식의 하늘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생겨 주님의 발아래 자신들의 면류관을 던지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에 영접될 때에는 승경찬탄의 소리가 저절로 일어난다. 이제 두 아담은 서로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는 그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아담을 안으려 하신다. 대개 이 아담은 주께서 창조하신 자요 그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이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자이다. 이때에 아담은 그 무참한 주의 못자국을 보고 주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황송하여 그 발아래 엎드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한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났던 에덴을 다시 보라고 이르신다. 낙원에서 쫓겨난 이래로 아담의 생애는 비통한 것이었다. 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든지, 희생이 되는 짐승을 보든지, 아름다운 천연계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나 인류의 순결을 더럽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의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으니 이제 그 잃어버렸던 최초의 영토는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담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7, 648)

## 말할 수 없는 기쁨

“그(예수님)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 12:2(새번역).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의 결과를 보셨다. 그분의 지상 생애는 수고와 희생으로 가득한 생애였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격려를 받으셨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분께서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티끌 가운데서 이끌어 올리셔서 당신의 성품의 모본을 따라 우리의 성품을 개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혼의 수고를 보시고 만족해 하셨다. 그분께서는 무한한 영원을 보시고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받을 사람들의 행복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다. 그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 그분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이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하는 것을 들었다. 비록 먼저 피의 침례를 받고, 결백한 그분의 영혼에 세상의 죄가 지워지고, 말할 수 없는 비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기를 작정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장차 우리가 받을 보상이 아무리 훌륭하고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마지막 구원의 때를 위하여 모두 보류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구주의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의료 봉사, 504).

구주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 생애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들은 마침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계 22:4). 하늘에서 하나님을 뵈는 것 외에 더 큰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를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었겠는가?(교회증언 8권, 267, 268).

## 구속 받은 자들의 감사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40.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행한 모든 행동은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오늘의 나의 생애, 364).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음약적인 음성이 들릴 때, 모든 추수꾼들의 기쁨은 참으로 클 것이다. 구속주께서 돌아가신 것이 헛되지 않았으므로 그분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멸망해 가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한 그들의 영혼의 수고를 바라보고 만족하게 된다. 그들이 보낸 근심스러운 시간들, 그들이 처해야 했던 난처한 환경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평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깨닫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생겼던 마음의 슬픔 등은 모두 잊혀진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실천한 극기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애쓴 영혼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속주의 사랑의 기념비들이 된 것을 볼 때에 하늘 궁정에는 찬양과 감사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리뷰 앤 헤럴드, 1907년 10월 10일).

우리 앞에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거민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을 것이다. ... 우리는 구속받은 거룩한 가족을 만나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우리는 금 거문고를 탈 것이며, 하늘에는 훌륭한 음악이 울려 퍼질 것이다. 우리는 빛나는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아래 던지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들은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생명수 곁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전에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밝히 알려 주실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907년 8월 8일).

## 하늘은 너무나 값싸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사 53:10~11.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으며 비교할 수 없다. 그 사랑은 무한하다. ...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심사숙고할 때,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치르도록 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 주제는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성도들을 경탄과 놀라움으로 충만하게 할 것인데,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그것을 명상하지 않는가? ... 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경건의 비밀이여! 이 신비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때에 더욱 증가한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희미한 견해마저도 세속적인 사물이 빼앗아 버리도록 허용할 것이다. ... 우리가 세상의 통속적인 일들에는 열광하면서 어떻게 갈바리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에 나타난 사랑에는 감동되지 않을 수 있는가? ... 이 모든 치욕과 고통은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방랑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 치러졌던 것이다. 나는 축복받은 자들의 본향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내가 만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구속의 경륜의 새로운 깊이를 계속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처음으로 온전히 깨닫고 감사할 것이며, 불멸의 입술에서는 찬양의 노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 증진된 능력, 순수한 마음, 더럽혀지지 않은 입술로 구속의 사랑의 풍성함을 노래할 것이다. 하늘나라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영원한 사물의 실재를 확신시키기 위해 애써야 할 불신자들도, 뿌리 뽑아야 할 편견도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즐겁게 하는 생명수 강가의 푸른 초원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실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곳이 있으니 그곳에서 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드린 기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요 17:24)게 해 달라고 간원하신 주님의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이다(그분을 알기 위하여, 371).

## 마침내 본향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 25:21.

그대의 감각이 이 세상의 주목을 끄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즐길 때에 죄와 사망으로 해를 입지 않은 장차 임할 내세를 생각해보라. 거기에서는 만물의 표면에 저주의 흔적조차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구원받은 자의 본향을 상상하여 보고 또 그것이 그대의 상상보다도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을 기억하라. 천연계의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희미한 것을 볼 뿐이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바라”(고전 2:9) 하였다(정로의 계단, 86, 87).

그리하면 머지않아서 천국 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이기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고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는 영광의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이 풍성한 음악소리와 같이 그들 귀에 들릴 것이다. 그때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에서 환영받게 될 것이다(정로의 계단, 125, 126).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도성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반짝이는 돌쩌귀들을 잡고 뒤로 밀쳐 활짝 문을 열어 제치고 진리를 사수해온 열국들에게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도성 안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눈을 현혹케 하였다.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넘치는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셨다. 성도들의 용모는 영광으로 빛났다. 그분께서는 자애로운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음악소리와도 같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노라. 너희들은 이 풍성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지어다. 이제 사망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고통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나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현혹된 채 나는 펜을 놓으면서 “오 어떠한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초기문집, 288, 289).

## 하늘에 가면 놀랄 것임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7.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 … 이웃 사람의 생각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같이 보이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실물 교훈, 71, 72).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죽을 때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가르쳐 줄 것이다.(성경주석 5권, 1124).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계시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으니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 상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로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발견한다. 희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이 죽으시는 구세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의 음성은 고민과 희망으로 뒤섞인다.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다. 응답은 즉시 이르렀다.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시대의 소망, 749, 750).

그런 믿음은 제 십일시에 와서 여러 시간 동안 일한 사람들만큼 품삷을 받은 일꾼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 강도는 믿음과 회개와 뉘우침으로 간구하였다.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구하였다(성경주석 5권, 1125).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지는 모르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시대의 소망, 638).

## 만족을 주는 해답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 55:9.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같을 수는 없다. ...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시는 분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친절한 관심과 돌보심에서 때때로 이기적으로 우리의 야망을 만족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 흔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의 계획이 좌절된다. ...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실망시켰던 신비들이 내세에서는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외관상으로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기도들과 성취되지 않은 희망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473, 474).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신비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향상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될 때 이 신비들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 영원한 신비라고 인정된 것들을 우리가 깨닫거나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일들이 그 때에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길들은 분명해질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신비들은 펼쳐질 것이다. 지금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 때에는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 온 것 가운데서 질서를, 보류되었던 모든 것 가운데서 지혜를,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서, 선하심과 은혜스러운 자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진리는 조금도 가려지지 않고 순수하게 마음에 펼쳐질 것이나 그 빛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은 기뻐 노래하게 될 것이다. 대쟁투는 영원히 끝나고 모든 어려움은 해결될 것이다(성경주석 6권, 1091).

하나님의 섭리들 중에서 우리를 혼란케 한 모든 것들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 때에는 밝혀질 것이다. 은혜의 신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혼란과 성취되지 못한 언약들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교회증언 9권, 286).

##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함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 골 3:2.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선을 이 세상 사물에서 돌이켜 하늘과 하늘의 사물들을 주목하게 된다면, 그들은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자비와 선하심과 동정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며, 그들의 생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은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는 일에 상상력을 최고로 발휘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고상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피곤해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으로 위대한 영생의 주제들을 깨닫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선을 위하여 우리의 온 성품에 영향을 주고 마음에 고상한 감화를 끼치려는 노력이 없이는 이 문제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기 어렵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구속을 위해 치러진 대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선이나 위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에 의해서만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깊은 죄악과 타락에 빠졌었던가를 알 수 있다. 우리를 이끌어 올리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진 사슬의 길이에 의해서만 우리가 얼마나 깊이 빠졌던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놀라운 구속의 주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물들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하다(하늘에서, 368).

우리는 거의 본향에 이르렀다. 우리는 머지않아 “그대들의 싸움은 끝났다”라고 하시는 어떤 음악보다도 훌륭한 구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얼마나 복되고 복된 말씀인가. 영원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다. 나는 그분께 찬양을 돌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음성이 하늘 궁정을 통하여 울려 퍼지기를 원한다. 그대는 그곳에 있을 것인가? ...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온갖 충만함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는 장차 올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하늘에서, 368).

## 구속 받은 자들의 보상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전 3:14.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주위에 모여들 때 그들에게 주어질 보상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의 성정을 가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으며 그 광경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멸을 입게 되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요일 3:2)이다. 그들은 사랑하시는 분의 영접을 받아 보좌 앞에 설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모든 허물은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흐려지지 않은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속의 경륜에서 그분과 함께 일해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 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동참하여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교회증언 9권 285).

그 날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천사들은 금 거문고를 타면서 왕과 그분의 승리의 전리품들을 환영할 것이다.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져 온 하늘을 채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승리를 얻으셨다. 그분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곧 당신의 고난과 희생의 사명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들을 거느리시고 하늘 궁정에 들어가신다. … 이 땅의 순례자들에게는 본향이 있다. 의인들을 위한 두루마기가 영광의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나무와 함께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 때에는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은 무한한 사랑이 명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교회증언 9권, 285, 286).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서 존경을 받으시고자 강림하실 때, 평안하게 그분을 맞이하는 무리에 속하도록 심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교회증언 9권, 285).

##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함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고전 2:9.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계발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 하늘의 문들은 그들을 영접하고자 활짝 열릴 것이며, 영광의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 훌륭한 음악처럼 그들의 귀에 울릴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 이리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고 계신 저택으로 영접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과 동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성품을 이룬 사람들이 될 것이다. 모든 죄악적인 경향과 불완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되고, 한 낮의 햇빛보다 훨씬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 곧 탁월하고 밝은 빛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적인 영광보다 훨씬 가치 있는 도덕적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이 그들을 통하여 비친다. 그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천사들의 위엄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자기가 소유하게 될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마 16:26)인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는 가난할지는 모르나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었던 부와 위엄을 소유하게 된다.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고상한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뛰어난 부를 소유하게 된다(하늘에서, 367).

축복받은 자들이 본향에서 영원히 거하고, 영과 혼과 몸에 죄악과 저주의 어두운 흔적이 아닌 우리 주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언제나 새로운 분야의 사상을 탐구하고, 언제나 새로운 경이와 영광을 찾으며, 언제나 알고 즐기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한한 기쁨과 사랑과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지향하는 목표이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편지, 55).

## 생명을 주는 열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2.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초자연적인 효능을 갖고 있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다. 그 열매는 사망에 대한 해독제가 되었다. … 죄가 들어 온 후에 하늘의 농부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하늘 낙원으로 옮겨 심으셨다(교회증언 8권, 288).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도성의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들은 타락하기 전의 첫 조상처럼 그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것이다. 넓게 퍼져 있는 그 나뭇잎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때 그들의 모든 슬픔은 사라질 것이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질병이나 슬픔이나 사망을 겪지 않을 것이다. 슬픔과 수고와 고통의 지배를 받으며 저주 아래서 신음하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첫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불멸의 과일을 먹기 위해 생명나무의 주위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하실 것이다. 우리의 첫 조상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한 자가 둘째 사망으로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잃어버릴 위험은 결코 없을 것이다(오늘의 나의 생애, 355).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불순종으로 아담은 그 조건을 상실했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은 사람에게 품성의 완성과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준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하신 다음의 증거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성경주석 1권, 1086).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다 처음 영광중에 있을 때의 인류의 키만큼 “자라난다.” 죄의 저주의 모든 흔적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께 충실한 자들은 영육이 한 가지로 주님의 완전하신 모양을 반사하며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고 나타난다(각 시대의 대쟁투, 645).

##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싸이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 4:2, 3.

보좌 위의 무지개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영원한 증거가 있다. 구름 속의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듯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로 이루어진 능력을 나타낸다. 공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의는 보좌 위에 있는 언약의 무지개의 영광을 가려서 사람들에게 올법의 형벌만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공의와 형벌이 없다면 하나님의 정부가 안 전할 수 없다. 심판과 자비가 조화를 이룸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 자비는 우리가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며, 공의는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왕족의 일원, 곧 하늘 임금의 자녀로서의 충분한 특권을 누리게 한다. 만일 품성에 결함이 있다면 우리는 자비가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열어 놓은 문들을 통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의가 입구에 서서 하나님을 뵈게 될 모든 사람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일 공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품성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그 문들을 열어 놓는다면 하늘에는 사단이 추방되기 전보다 더 심한 불평과 반역의 상태가 전개될 것이다. 하늘의 평화와 행복과 조화는 깨어질 것이다. 비록 세상에서 하늘로 장소가 바뀔지라도 사람들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꼴 지워진 품성에 기인된다. 하늘의 성도들은 먼저 지상에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시고 사람에게 주신 구원은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화되지 않으나 죄의 세력은 깨어지고 자비의 홀은 참회하는 죄인에게 주어진다. …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제로 삼자(리뷰 앤 헤럴드, 1892년 12월 13일).

## 우리의 왕을 볼 것임

“너의 눈은 그 영광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사 33:17.

만일 우리가 그 영광중의 왕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를 벗어버려야 한다. 화가 날 때는 침묵하도록 하자. 침묵이 웅변이 되는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도록 인내와 친절과 관용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그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 9:23)고 말씀하신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일은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훈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침묵은 폭풍우처럼 노한 말을 퍼부어 대는 것보다 악을 이기는데 훨씬 더 큰일을 한다는 사실을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늘 궁정에서 한 자리를 얻으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교훈들을 배워 하늘 궁정의 더욱 높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구주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생명 강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실 것이다. … 우리는 거기서 이 세상에서 결코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자 계속해서 떠러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영광을 희미하게 깨달을 뿐이다(하늘에서, 365).

우리가 지상의 학교에서 배운 모든 의로운 원칙과 진리는 하늘학교에서 우리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봉사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생명강가로 인도하시며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인간적인 두뇌의 제한성 때문에 신비 속에 숨겨졌던 진리들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늘 학교에서도 우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늘 학교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씩 최고의 지식수준에 도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하늘 임금의 자녀들로서 왕족들과 더불어 항상 거하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왕을 보며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08, 209).

## 144,000인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14:1.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계 15:2)긴 자들의 무리는 보좌 앞에 있는 투명한 바다 곧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된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명은 하나님의 거문고를 손에 들고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계 14:2)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소리”를 노래한다. 그런데 이 노래는 14만 4천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이니 곧 구속의 노래이다. 이 노래를 14만 4천명 밖에는 아무도 노래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그들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니 이런 경험은 다른 아무 사람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땅에 산 자 가운데서 변화함을 받은 자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계 14:4)이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최후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계 7:14)므로 구원하여 뉘를 얻은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계 7:15~17).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유행병으로 황폐하고 태양이 심한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또한 그들 자신도 고통과 기갈을 당하였으나 과연 그들은 세상의 온갖 쓰라린 맛을 다 맛본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 이러라”(계 7:14~16)(각 시대의 대쟁투, 648, 649).

##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큰 무리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계 7:9.

모든 계급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사람들이 흠 없는 옷을 입고 보석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것이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서 그들의 옷을 빨아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 곧 방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두 세상을 모두 잃었다. 그들은 이생의 사물도, 불멸의 생명도 얻지 못하였다. 면류관을 쓰고 수금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한 무리들은 세상에서의 고통이 가열되어 극히 견디기 어려울 때 용광로 같은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빈곤과 굶주림과 극심한 고통과 극기와 쓰라린 실망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다. 승리자가 된 그들을 바라보라.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슬프지도, 괴롭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지도 않게 되었다. 어떤 왕의 옷보다 더욱 화려한 그들의 희고도 빛나는 하늘 옷을 바라보라. 지상의 어떤 군주의 이마에도 그렇게 장식된 바 없는 그들의 보석 박힌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들이 크게 호산나를 부르면서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의 음성을 들어 보라. 그들이 다음과 같이 노래 부를 때 훌륭한 음악이 하늘을 채운다. “죽음을 당하셨다가 영원히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때에 천군 천사, 곧 천사들과 천사장들, 덮는 그룹과 영광스러운 스랍이 기쁘고 의기양양한 노래의 후렴을 다음과 같이 화답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계 7:12). 아, 그 날에는 의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던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그들이 받을 몫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들은 그 때 순결의 띠를 띠고 영원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을 것이다(하늘에서, 371).

## 영혼 구원자의 받을 보상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3.

다니엘의 말을 생각할 때, 나는 밤에 잠을 깨어 그 말을 거듭 되풀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하늘에서 반짝이는 태양과 별들을 바라보라. 그 이름들이 다 알려져 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라고 말씀하신다(하늘에서, 364).

영혼을 오류에서 진리로 개심시키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인식해야 하고, 둘째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달아야 하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존귀와 영광을 이해하고, 인간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여 승리한 자에게 왕관을 주시고자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유한한 믿음으로는 영혼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 구속함을 받아 영광스럽게 된 자들은 그들이 구원을 위하여 일해 준 사람들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 것인가. 의무를 등한히 했거나 선행에 염증을 느꼈더라면 잃어버린바 되었을지도 모르는 영혼을 위한 극기의 노력과 참을성 있는 수고와 인내와 관용과 간절한 열망을 그 때에는 아무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흰옷 입은 그 사람들은 크신 목자의 우리에게 모여 있다. 충성된 일꾼과 그의 수고로 구원을 받은 영혼이 보좌 한 가운데 앉으신 어린 양의 환영을 받으며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구속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구속받은 자들을 얼마나 큰 기쁨으로 바라볼 것인가. 영혼구원 사업에 충성해 온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취리라”(교회증언 5권, 620, 621).

사람들이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199).

## 하늘의 사물을 생각함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 7:14.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흰 옷을 입은 한 무리를 보았다. …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그분의 보혈로 자기들의 옷을 빨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과가 이를 것이다. 우리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조건으로 그 일이 성취된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하늘의 사물들을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죽음과 고통이 없다. 우리는 왜 이런 것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처럼 싫어하는가? 우리는 왜 세속적인 사물을 생각하는가? 사도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 3:20) … 그리스도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모으시고자 곧 오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을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 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8)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싫어하는가? …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 경험에 모셔야 한다. 그대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라. …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더욱 보게 될 것이다(하늘에서, 370).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다가오는 생애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분위기를 호흡하면서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늘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거룩한 교제와 즐거움을 좋아할 것이다. …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계 22:3, 4)(하늘에서, 370).

## 하늘의 영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사 64:4.

많은 사람들이 장차 올 세상의 영광을 깨닫고 드러나 있는 영원한 신비의 비밀들을 알기를 갈망하였으나 그들의 노력은 허사였다.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위대하신 분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상 받을 자들의 상급을 생각하기에 필수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 하늘의 사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것들은 영적인 마음만이 식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하늘의 영광을 상상하기 위하여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고전 2:9)한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 빛의 천사들은 하늘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 올린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그들의 형체를 바라볼 수 없고 영적인 눈으로만 하늘의 사물들을 분별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빛의 천사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소멸될 것이다. 영적인 귀만이 하늘 음성들의 조화를 식별할 수 있다. 눈부신 묘사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획이 아니다. … 그분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아주 분명히 표명하셨다. 실상이 외의 것이 필요치 않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하늘 문턱으로 데려가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하늘성소에서 넘쳐흘러 그 입구를 통하여 비치는 하늘 내부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으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곳을 보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저주로 온통 마비되고 손상을 입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임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늘의 빛으로 걸어가야 할 곳은 죽임의 장막 같은 도덕적 흑암이 덮여 있고,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이다(하늘에서, 366).

## 영원한 사물을 바라보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후 4:18.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에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의 동이 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 그것을 떨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나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아니하였다. ... 진리는 거룩한 힘을 얻어 가장 굳은 방벽을 뚫고 그 길을 내졌고 모든 장애를 이길 것이다. 수고와 희생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지탱하였는가? 당신께서는 자신의 영혼이 수고한 결과들을 보고 만족하셨다. 영원을 내다보신 그분은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의 환호성을 들으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이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셨다. 우리는 장래 즉 복된 하늘에 관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리신 광경인 미래의 영광의 계시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계시들은 당신의 교회에게 귀중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성읍의 문어귀에 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그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자들에게 주어질 정중한 환영사를 들을 수 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오”라는 말이 들릴 때에 그들은 구속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는다(마 25:34; 계 5:12, 13). 거기서 구속받은 자들은 구세주께 인도한 자들에게 인사하고 모두 연합하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싸움은 끝난다. 환난과 투쟁은 종식을 고한다. 구속받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셨다가 살아나신 어린양이 승리의 정복자가 되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기쁜 노래를 부를 때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에 충만하게 한다(사도행적, 601, 602).

## 저희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이 복이 있음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 22:14.

우리가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러 하늘 합창대에 참가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때에 가졌던 바로 그 품성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 지금이야말로 옷을 빨고 다림질할 때이다. ...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이는 ...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계 7:14).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귀하신 구주께서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애와 견줄 수 있는 한 생애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 거기에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질병이나 사망이 없다. 모든 것이 평화요 조화요 사랑이다. ... 지금은 우리가 영생을 위한 성품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을 하고자 은혜와 힘과 능력을 받을 때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가 될 것이다. 또한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때, 승리자들의 머리에는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다. 진주 문들이 진리를 지킨 민족들에게 열리고, 그 안으로 영접될 것이다. 마침내 싸움은 끝난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진정 그대를 도우셔서 이 세상의 싸움을 싸워 매일 승리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발 앞에 면류관을 가져다 놓고 금 거문고를 타고 온 하늘을 가장 훌륭한 음악으로 채우는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대가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의 구주를 배척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대를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보는데, 그대도 이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하늘에서, 369).

## 천 년간의 심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라” 고전 6:3.

악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의 1천 년  
간에 진행된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이 재림에 뒤  
따라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때가 이  
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  
의 뜻을 나타내시리”(고전 4:5)라. 다니엘은 또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  
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을 베풀고”(단 7: 22)라고  
선언하였다. 이때에 의인들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계시록에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  
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계 20:4, 6). 바  
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  
하느냐”(고전 6:2)라고 예언한 것은 이때에 있을  
일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  
하고, 그들의 행위를 올բ전서 곧 성경에 비추어 보  
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  
다. 그리고는 그 행한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을  
형벌이 결정되어 사망 책에 있는 모든 악인의 이름  
밑에 기록되는 것이다. 또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6:3)라고 하였다. 유다는 말  
하기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  
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으로 흑암에 가두셨”(유 6)다고 하였다. 1천년 마  
지막에 둘째 부활이 있다. 이때에 악인들은 사망에  
서 일어나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기 위하여 하  
나님 앞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계시록 기자는 의인  
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한 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  
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계 20:5)  
고 하였다. 이사야는 이때의 악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징  
벌을 받을 것이라”(사 24:22) (각 시대의 대쟁투,  
660, 661).

## 그리스도께서 다시 지상에 돌아오심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  
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  
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유 1:14,  
15.

그리스도께서는 1천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  
오신다. 주께서는 구속받은 자의 무리와 수종드는  
천사들의 일행을 데리고 오신다. 그분께서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에 죽은 악인들에게는 형벌  
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하신다. 그들은 바다  
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큰 무리로 일어난다. 이는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에 비하여 얼마나 험격한  
대조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부활한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  
적을 가진 채로 일어난다. 이 큰 무리의 모든 눈은  
일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목한다. 그들은  
일제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  
다”하고 부르짖는다. 그들이 이와 같이 부르짖음은  
예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진리의 세력이 원치 않  
는 입술들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한다. 그들은 그  
그리스도께 대하여 자신들이 무덤에 내려갈 때에 가  
졌던 것과 같은 증오심과 같은 반역적 정신을 가지  
고 일어난다. 그들은 과거의 생애에 있던 오점을 없  
이할 새로운 은혜의 시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  
다. 혹 은혜의 시기를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  
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죄악 중에서 지  
낸 그 일생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 설  
혹 제2의 은혜의 시기가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처음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요구를  
기피하고 한갓 반역을 일으킬 뿐이다. 그리스도께  
서는 그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곳이요 천사들  
이 재림의 허락을 선언한 곳인 감람산 위에 내려오  
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나의 하  
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 ”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  
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  
나이실 것이라”(슌 14:5, 9). 이 광휘 찬란한 새 예  
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 올 때에 이 성을 받기로 준  
비된 성결한 곳에 정착될지니 그리스도께서 그 백  
성들과 천사들로 더불어 그 거룩한 도성에 입성하  
신다(각 시대의 대쟁투, 662, 663).

## 사단이 옥에서 놓임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계 20:7, 8.

1천년의 마지막에 둘째 부활이 있다. 이때에 악인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기록한 판단대로” 형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계시록 기자는 의인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한 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계 20: 5)고 말하였다. 이사야는 이때의 악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징벌을 받을 것이라”(사 24: 22)(각 시대의 대쟁투, 661).

이때에 사단은 그 최상권에 대한 최후의 큰 싸움을 위하여 준비한다. 그 권력을 빼앗기고 그 속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악의 왕도 처량하게 보이었으나 이제 악인들이 부활하매 그는 큰 무리가 자기의 편임을 알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용감하게 일어나 큰 싸움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사단은 악한 자들의 온 군대를 자신의 군기 아래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하려고 노력한다. 그 악한 자들은 사단에게 붙들린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 반역의 두목의 지배를 받는다.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좇고 즉시로 그 명령을 복종한다. 이때에도 사단은 여전히 그 간교한 수단을 써서 자기가 사단임을 부인한다. 그는 자기가 이 세상의 정당한 구주인데 무법하게 그 계승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단은 자기가 미혹한 부하들에게 자기가 구주인 것처럼 말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고 이제부터 그들을 그 극히 잔혹한 폭정에서 구하여 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게 되면 사단은 이와 같은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상한 일들을 행한다. 허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자기의 모든 정신과 세력을 넣어 준다. 사단은 그들을 사용하여 성도들의 진을 엄습하고 하나님의 성을 점령하기로 계획하는 것이다. 그는 사망에서 부활한 은하와 같은 큰 무리를 지시하고 자신이 그들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능히 그 성을 탈환하고 자기의 보좌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각 시대의 대쟁투, 663).

## 악인들이 새 예루살렘 공격을 준비함

“사단이 … 땅의 사방 백성 … 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계 20:7, 8.

이 큰 군중 가운데는 홍수 전에 있던 장수한 종족-거대한 몸집과 위대한 지능을 가지고 그 몸을 타락한 천사의 지배에 맡겨 온전히 자신을 높이기 위해 그 모든 기능과 지능을 쓴 자-들도 있다. 그들은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우상으로 가득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잔혹함과 사악한 발명을 통하여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게 한 연유이다. 그들 중에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왕과 장군들도 있고 일찍이 전장에서 한 번도 패배해 본 일이 없는 용사도 있고 여러 나라를 전율케 한 거만하고 야심이 많은 전사들도 있다. 그들의 경험은 사망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생각은 그것이 정지될 때와 같이 회복된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자신들을 지배한 그 같은 정복에 대한 욕망이 다시 힘 있게 일어난다. 사단은 그 부하들과 상의하고 그 다음에는 왕후와 정복자와 이른 바 위인이라 사람들과도 더불어 상의한다. 그들은 자기들 편에 가담한 자들의 수효가 많은즉 아주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부요함을 그 손에 넣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 전원은 즉시 전투 준비를 개시한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병기를 제작한다. 무훈이 혁혁한 무장들은 호전적인 군중을 모아 배열하여 그들을 여러 군단으로 나눈다. 드디어 진군 명령을 내리고 셀 수 없는 대군이 행진을 개시한다. 이는 일찍이 어떠한 정복자도 소집한 일이 없는 대군, 이 세상에 전쟁이 있어 온 이래로 각 시대의 모든 군대를 다 합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을 큰 군대이다. 그 최대의 전사인 사단은 스스로 그 진두에 서서 군대를 인도하고 악한 천사들도 이 최후의 전투에 협력한다. 많은 왕들과 장군들이 그를 좇고 여러 군단으로 이룬 큰 군대가 그를 따른다. 그 각 군단에는 지휘관이 있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질서정연하게 그 울퉁불퉁한 지상을 행진하여 하나님의 성으로 나아간다. 이때에 새 예루살렘의 문은 구원 얻은 의인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닫히고, 사단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한다(각 시대의 대쟁투, 664).

## 마지막 심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2.

이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위 높은 곳, 광휘 찬란한 순금 기초 위에 보좌가 설치되고 그 보좌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앉으시는데 그 주위로는 그의 나라의 시민들이 웅위한다. 이때의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붓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은 그 거룩한 아들을 둘러싼다.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에 차고 그 성 밖으로도 넘쳐 온 세상은 그 광취로 가득하게 된다. 보좌의 가장 가까이에는 일찍이 사단의 사업에 열심하였으나 지금은 마치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불타는 나무와 같이 구주를 열심히 따르고 신뢰하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속임과 불신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히 지킨 자, 그리스도교 사회가 하나님의 율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때에도 그 율법을 존중하여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한 자, 각 시대를 통하여 신앙을 위하여 그 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린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한 그 밖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계 7:9) 있다. 이때에 구속을 얻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미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천정에 반향 되고 또 반향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 7:10) 천사들과 스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한다. … 하나님의 아들의 최후의 대관식은 천지간의 온 주민이 집합한 가운데서 거행된다. 그리하여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지극히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정부에 대하여 반역한 자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대하여 공의를 집행하신다. … 이렇게 책들은 펼쳐지고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일찍이 범한 죄를 다 생각하게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65, 666).

##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을 것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4.

각 사람의 경우에는 얼굴 모습을 화가의 세련된 화관에 옮기는 일보다 훨씬 훌륭한 진보의 과정이 있다. 사진사의 기술은 어떤 모양을 단순히 없어질 물질 위에다 옮긴다. 그러나 생애의 기록에 있어서는 성품이 충실히 묘사된다. 이 기록은 아무리 모호할지라도 속죄하는 희생 제물이신 분의 보혈이 아니면 없앨 수 없다(리뷰 앤 헤럴드, 1884년 11월 4일).

하나님의 천사들은 화가가 사람의 모습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그 성품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86년 2월 2일).

재판장께서 좌정하시고 책들이 펴질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이 폭로될 것이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인간의 시선과 유한한 판단력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는 은밀한 죄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될 것이다. 마음의 어두운 밀실에 숨겨졌던 동기와 의도들이 드러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84년 1월 1일).

“모든 것이 생생한 사진처럼 나타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1년 1월 13일).

그 엄숙하고 두려운 순간에 남편의 부정이 부인에게 공개되고 부인의 부정이 남편에게 공개될 것이다. 그 때 부모들은 처음으로 자녀들의 진정한 성품을 알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생애를 특장지었던 잘못된 실수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거짓 주장으로 이웃의 소유를 빼앗은 사람은 불의하게 얻은 이익에 대한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한 회계와 모든 부정한 거래를 당신의 책에 기록하신다(리뷰 앤 헤럴드, 1888년 3월 27일).

그 날에 부족함이 드러난 죄인들이 선고받을 때 기억은 진실하고 생생하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상기할 것이며, 온 생애가 주마등처럼 회상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84년 11월 24일).

##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심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 5:22.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시는 중에 다가올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과 그 심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깊이 감명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몇 사람이나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 곧 지각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랑과 정직과 봉사가 최고로 높여지도록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참석할 가운데 열릴 것이다. 거기에는 영광과 존귀가 결여되지 않을 것이다. ... 하나님의 율법이 위엄 있게 나타날 것이며, 그 거룩한 교훈에 반항하며 반역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버리고 멀리하고 짓밟았던 율법이 하나님의 표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온 하늘의 거민들이 극히 작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구상의 거민들의 영혼을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왜냐하면 논쟁의 여지없이 그분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쓰신 고난의 왕자께서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궁정에서 오신 분, 지상의 법정에서 심문을 받으신 분, 십자가상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분께서만 상급의 선언과 형벌의 선언을 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권고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달게 받으신 분께서 가장 훌륭한 보상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하여 온 하늘 거민들이 성도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보좌에 오르시게 된다. 그분께서는 구원의 사업을 맡으시고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과 하늘 가족들 앞에서 당신이 시작한 사업을 마칠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 ... 최후의 형벌과 보상의 날에 성도들과 죄인들은 모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께서 모든 산 자의 심판자가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 마지막 결정의 날은 참으로 엄숙할 것이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하도록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허용되어 있고, 특권들이 주어져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이 귀중한 시간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계발시켜야 하겠다(리뷰 앤 헤럴드, 1898년 11월 22일).

## 보상과 형벌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 25:34.

구주께서는 오른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의 선고를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의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후하게 보상을 받을 만큼 일을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그분의 성도들을 섬기는 중에 그리스도를 섬겨 왔으므로 분명한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보상에 대한 기대가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한 동기가 되지 않았었다. 그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와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었다. 예속되어 있다는 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에 대한 약속을 감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께서 정당하게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모든 이익과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하도록 하시고 상급을 너무나 갈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 가장 풍성한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열심히 활동하는 한편 가난한 자들, 고아들, 압박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 우리 주변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 곧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사소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낙담한 사람들에게 한 친절할 말을 그리스도께서 들으셨고, 약간의 극기를 무릅쓰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준 가장 적은 선물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놀랄 것이다. 주님께서 마음을 달아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 그러므로 순수하고 겸손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 헌물은 그분의 눈에 귀중한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94년 7월 3일).

## 거룩한 도성위에 파노라마처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

그 보좌의 위에는 십자가가 나타나고 또한 아담이 받는 유혹과 타락, 이에 계속되는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전개된다. 구세주의 비천한 탄생, 그분의 단순하고 순종하던 소년 시대, 요단강에서의 침례,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 받으심, 그분의 공생애와 하늘의 가장 귀한 행복을 보여 주심, 사랑과 자비로 종일토록 봉사하신 낮과 고요한 산중에서 깨어 기도하신 밤들, 그분께서 베푸는 은혜에 대한 질투와 악의에서 나온 음모, 온 세상의 죄 짐에 눌려서 고민하신 그 두렵고 애절한 것세마네의 정경, 배반을 받아 잔혹한 폭도의 손에 빠지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저항하지 않는 죄수로 예루살렘의 거리를 끌려다시신 그 공포의 밤에 있는 놀라운 사건들, 의기양양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만한 안나스의 앞에 끌어들여 대제사장의 집에서 송사하였으며 또한 빌라도의 심판정에서와 비겁하고 잔혹한 헤롯의 앞에서 조소하고 모욕하고 고문하였으며 마침내는 사형의 선고를 내리는 모든 장면들이 여실히 묘사되었다. 이제는 크게 뭉쳐 움직이는 무리들 앞에서의 최후의 광경-인내의 수난자나 갈바리를 향하여 길을 걸어가, 하늘의 임금께서 십자가에 달리심, 교만한 제사장들과 조롱하는 폭도들이 그분의 죽어가는 고민을 멸시함, 또는 천지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려 바위가 깨어지며 무덤이 열려서 구세주께서 자신의 일생을 마치시는 찰나를 확인하는 광경들이 나타난다. 사단과 그 천사들과 악인들은 그 두려운 광경을 볼 때에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행한 것이므로 어찌할 줄 모른다. 그 여러 일에 참가하였던 자들은 각각 자신들이 행한 일을 회상한다. ...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다. 구속된 무리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구주의 발앞에 던지면서 “구주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부르짖는 반면 흉악한 자들은 구주의 낮에서 발하는 거룩한 위엄과 휘황하게 빛나는 햇빛을 피하려고 노력하나 그것은 헛된 노력이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66, 667).

## 심판에 참석할 역사적인 인물들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하기를 ...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사 45:23, 24.

구속함을 받은 군중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사도들 곧 용감한 바울, 열심 있는 베드로, 주를 사랑하고 또 주의 사랑을 받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진실한 형제들과 많은 순교자들의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 성벽 밖에는 일찍이 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인 자들이 모든 더럽고 가증한 자들과 같이 있다. 거기에는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여 그들이 몹시 고민함을 보고 악마의 기쁨을 느끼던 잔인무도한 내로도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기양양하게 즐거워함을 보고 있다. 또한 그의 어머니도 거기서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를 목격하고 자기의 악한 품성이 그 아들에게 얼마나 유전됐는가를 보고 동시에 자기의 감화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조장된 감정이 얼마나 세상을 떨게 한 범죄로 나타났는지를 알게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67, 668).

거기에는 가는 곳마다 열국들을 떨게 했던 대아망가 나폴레옹도 있었다(초기문집, 293).

거기에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혹은 고문대, 투옥, 화형주를 사용한 법왕교의 승려와 주교들도 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참람되게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율법을 변개하려고 한 교만한 법왕들도 있다. 이들 교회의 거짓된 교부들은 하나님의 앞에 불가불 청산해야 할 일이 있다. 그들은 전능하신 이가 당신의 율법을 거스리는 자에게 얼마나 질투하시는 이시며 또한 범죄한 자는 결단코 죄 없다고 아니하시는 자이심을 그들이 깨달으나 때는 너무 늦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생당하는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하심을 보고 또한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 25:40)하신 주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된다. 이때에 모든 악한 자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모반이라는 죄명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문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건에 대하여 아무 간월할 것도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선고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68).

##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롬 14:10, 11.

악인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주목한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그들이 거부하고 유린한 하나님의 율법이 돌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그들은 구원 얻은 자들이 경이와 환희와 찬송의 소리가 발함을 볼 것이며 그 노래 소리가 성밖 군중에게 들릴 때에 모든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강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3) 외치면서 엎드려 생명의 왕께 경배한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마비된 자와 같이 된다. 일찍이 덮는 그룹이었던 그는 그 타락했을 당시를 생각한다. 빛나던 스랍,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변하고 어찌하여 타락하였는고! 그는 그가 일찍이 존경함을 받던 회의에서 영원히 제외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영광에 싸여 아버지의 곁에 가까이 서신 것을 본다. 또한 고상하고 위풍이 늠름한 한 천사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것을 보고 사단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 천사의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임을 인식한다.

추억은 허물이 없고 순결하였던 옛날로 돌아간다. 사단은 자기의 수고의 결과인 그의 나라가 오직 패배와 파멸뿐임을 깨닫는다.

이제 그 모반은 드디어 종결되고 사단의 이력과 품성이 밝히 드러날 때가 온 것이다. 곧 큰 기만자 사단이 그리스도의 폐위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며 거룩한 성을 탈취하려고 최후의 노력을 할 때에 그의 정체는 완전히 폭로되는 것이다. 그와 협력하여 온 자들도 마침내 그의 일의 궁극적 실패를 보게 된다. 사단은 온 우주의 증오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하게 되고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한 비난은 도리어 전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리하여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평함을 승인하게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68~670).

## 하나님의 성품이 옹호됨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 15:3.

오랫동안 싸워 오던 참과 거짓의 온갖 문제는 이제 명백히 드러나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 앞에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정부에 전면 반대한 사단의 주의와 주장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온 우주 앞에 공개된다. 이에 사단 자신의 행위는 그 자신을 정죄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온전히 옹호되고, 대쟁투 중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지는 온전히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 피조물의 온갖 행복 때문에 시행된 것임이 확실하여진다. 그리하여 죄의 역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율법이 그 지음을 받은 만물의 행복을 위하여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온 우주의 충성된 자들과 반역한 자들은 대쟁투의 온갖 것을 놓고 이구동성으로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언명한다.

일찍부터 온 우주는 인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아들께서 치루신 큰 희생을 보아 왔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정당한 지위를 가지시고 권위와 영토와 및 온갖 이름있는 모든 위에 존송함을 받을 때는 왔다.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무릅쓰고 십자가의 굴욕을 당하신 것은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많은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과 치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기쁨과 영광은 그보다 더욱 컸다. 그분께서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각각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되어 그 얼굴에 왕이신 당신의 광채를 반영하는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수고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심히 만족하게 여기신다. 이에 당신께서는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가 들을 만한 소리로 “내가 나의 피로써 산 자들을 보라! 내가 저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은 것은 저들로 영원토록 내 앞에서 거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하신다. 이 때에 보좌에 둘러 있는 흰옷을 입은 구속받은 자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 하고 소리를 높여 찬송한다(각 시대의 대쟁투, 670, 671).

## 죄와 죄인들이 없어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 4:1.

사단이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승인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나 그의 성질은 변화되지 않는다. 반역의 성질은 다시 큰 격류와 같이 밀려온다. 사단은 분노가 충만하여 그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하늘 왕계 대한 최후의 결사적 쟁투가 시작된다. 그는 그 부하들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 분격하여 그들을 격동시켜 일어나서 일대 결전을 하게 한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모반에 참가한 그 무수한 무리 중에는 이제 그의 최상권을 승인하는 자는 하나도 없게 된다. 그의 권세는 파멸에 이르고 악인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사단이 고취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기는 하나 그들을 자신들의 처지가 아무 소망이 없음과 자신들이 도저히 여호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 분노를 사단에게로 향하고 기만의 대리자들에게 분노를 폭발한다. 그들은 열화와 같은 분노로써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든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겔 28:6~8)리리라.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의 재가 되게 하였도다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임이여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겔 28:16~19).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땅은 무너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춰있던 무기가 풀려 나온다. 모든 무너진 동굴에서는 맹렬한 화염이 터져 나오고 모든 암석들은 사루어진다. 풀무불과 같이 타는 날은 드디어 이르렀다.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은 다 타버린다(각 시대의 대쟁투, 671, 672).

## 죄를 생각나게 할 유일의 것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 11:31.

악한 자는 땅에서 그 보응을 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말 4:1) 사를 것이다. 어떤 자들은 순간 동안에 멸망을 받으나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 각 사람은 다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의인의 죄는 사단에게 옮긴 바 되었으니 그는 자기의 반역의 죄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범하게 한 모든 죄를 인하여서도 고통을 받는다. 사단이 받은 형벌을 그에게 속은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도 훨씬 중한 것이다. 그의 속임으로 타락한 자들이 멸망한 후에도 그는 그냥 생존하여 고통을 계속하여 받는다. 그리하여 그 정결케 하는 불은 악의 뿌리와 가지 곧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온전히 멸하는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73).

사단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모든 자들이 끊어질 것이다. 그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시 37:10; 욥 16)(시대의 소망, 763).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표명되고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은 소리를 높여 아멘이라고 소리친다.

세상이 하나님의 복수의 풀무불에 휩싸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거한다.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들을 지배하지 못한다(계 20:6).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되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해와 방패가 되신다(시 84:11)(살아남는 이들, 429).

악인을 소멸하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된다.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죄의 두려운 결과를 생각나게 할 이른바 영원한 지옥이란 없는 것이다.

오직 한 기념물이 남을 것이니 곧 우리의 구주께서 영원히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흔적을 가지시게 되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은 회복되었다. 세상이 구속된 자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때에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신 최초의 목적은 성취되는 것이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시 37:29)(각 시대의 대쟁투, 674).

## 우리는 왕족에 속함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일 3:2.

세상의 어떤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늘 임금의 자녀이며 왕족의 한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은 영광을 줄 수 있겠는가? 세상의 고귀한 사람들도 다만 사람에게 불과하여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므로 그들에 대한 칭찬과 영광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후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부 곧 세상의 보석인 은금과는 비교해 볼 수조차 없이 가치 있는 보화를 취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84년 6월 10일).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고상하게 되고 향상하게 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찬탄한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음식, 의복, 지위, 재물 등에도 가치가 있기는 하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야 하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 왕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위엄은 태양처럼 빛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은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들에게 반사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라도 희생하고 얻는다 해도 값싸게 얻는 셈이다(교회증언 4권, 357).

요한이 육신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으며,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멸의 옷을 입을 때 그들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그들은 사랑하시는 분의 영접을 받아 보좌 앞에 설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으며 그들의 모든 허물은 도말되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흐려지지 않은 영광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들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을 참여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교회증언 9권, 285).

## 만족을 주는 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 5:17.

하늘은 흥미 있는 활동의 장소이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는 하늘은 영광스러운 안식이 될 것이니 불멸의 젊음과 활력이 저희 것이 될 것이며 죄와 사단에 대항하여 다시는 더 싸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정력적인 일꾼들에게는 영원한 나태의 상태는 지긋지긋하여질 것이다. 이런 상태는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이다(새자녀 지도법, 354).

에덴의 거민들에게는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들의 일은 지루하지 않았으며 유쾌하고 활력을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지정하셔서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며 그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하셨다. 아담은 지적 및 육체적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의 경건한 생존의 최고의 즐거움 중의 하나를 발견하였다.

비록 노동에는 권태와 고통이 따를지라도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자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흔히 근로 계급을 멸시하는 태도로 내려다보나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소유물이라도 군주다운 아담에게 주어진 재산에 비하면 얼마나 적은가? 그대도 아담은 게으르지 않아야 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임을 아시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그가 할 일을 지정하셨다. 생애의 참된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부조와 선지자, 50).

하늘에서는 계속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얻어 우리를 위해 마련된 저택들을 갖게 될 때, 행복스러우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 상태에서 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98년 5월 17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일꾼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짐승이 게으름 사람보다 훨씬 더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실한 사람들은 수고를 벗어나고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영접을 받을 것이다(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280).

## 새하늘과 새 땅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벡후 3:11~13.

악한 자들의 발은 새롭게 된 땅을 결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불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릴 것인데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살라버릴 것이다. 사단은 그 뿌리이고 그에게 속한 자들은 그 가지이다(초기문집, 52).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바로 그 불이 온 땅을 정결케 하였다. 부서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모든 그루터기와 대기까지도 불살라졌다. 그런 후 우리의 발을 새 유업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마침내 새롭게 된 온 땅을 상속받았다(초기문집, 54).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악인을 태우는 불이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된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죄의 두려운 결과를 생각나게 할 이른 바 영원한 지옥이란 없는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74).

바다는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장벽이 된다. 우리의 교제는 넓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대양에 의해 끊어진다. 새 땅에는 바다가 없을 것이므로 노예들이 젖는 배가 다니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배 안의 고정된 자리에 쇠사슬로 묶인 채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노를 저었다. 주님께서는 동정과 긍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셨다. 새 땅에는 사나운 격류나 삼켜버리는 대양이나 불안하게 출렁대는 파도가 없을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자(성경주석 7권, 988).

어떤 예술가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인간의 혀로도 묘사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늘 분향, 빛나는 도성과 흰옷을 입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사 64:4) (리뷰 앤 헤럴드, 1882년 7월 11일).

## 다시 사망이 없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러라” 계 21:4.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지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겪는 시련과 고생과 고난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믿음으로 살리라, 371).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분향에는 눈물이나 장례식이나 애통함이 없을 것이다. “그 거민은 내가 병 들었노라 하지 않을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사 33:24).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행복의 물결이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질 것이다. 미래에 축복 받을 자들을 가장 깊이 생각해 보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암흑의 구름을 뚫고 세상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당신의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를 심히 괴롭히는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목표로 달려가는 일에 유익한 교훈이 되도록 하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가지라. 이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도록 하자.

우리는 분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한 성을 마련하셨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쉴 곳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피 부르짖는 일이나 깨어진 소망과 매장된 애정에 대한 슬픈 노래가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무거운 옷은 결혼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의 임금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추어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영생의 소망이 집중되어 있는 분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대면할 때 이 세상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은 하잘 것 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도록 하라(교회증언 9권, 286~288).

## 구원받은 자들의 유업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사 32:18.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유업을 분향이라고 하였다. 그곳에서 하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양무리를 생명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만민으로 소성케 한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과 같이 맑고 그가에 있는 나무는 주의 구속하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뺀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야 위에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오랫동안 죄악과 저주의 세상에서 그 거할 집을 발견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사 35:1), “жат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사 55:13), “그 때에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사 11:6),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사 11:9)다(각 시대의 대쟁투, 675, 676).

거기서 인간은 잃었던 통치권을 회복하고 낮은 동물들은 다시 인간의 지배권을 인정하며 사나운 것은 온순해지고 겁많은 것은 믿음직하게 여겨지게 된다(교육, 304).

하늘의 분위기 중에는 고통이 있을 수 없다. 그곳에는 눈물이 다시 없고 장례식도 없고 애통함도 없을 것이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2).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사 33:24)(각 시대의 대쟁투, 676).

거기서는 에덴의 생활, 곧 전원의 생활이 영위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사 65:21, 22)라(교육, 303, 304).

## 에덴 동산이 회복됨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7.

에덴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가 무죄하던 때의 집을 바라보는 것이 오랫동안 허락되었는데 천사들로 막혀 있었다. 그 그룹들이 지키는 낙원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곳까지 나아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범법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한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최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는 그들의 멸망을 결정하였을 때에 에덴을 만드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회하셨다. 그러나 만물이 회복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최후의 때에 에덴은 태초보다 더 영광스러운 단장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불사의 활력을 가지고 생명나무 아래서 쉴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무죄한 세계의 거민들은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사업의 표본, 사람이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경륜을 성취하였더라면 온 지구가 그러하였을 표본을 바라볼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62).

아담의 처음 통치권은 다시 회복된다. 아담은 기쁨으로 어쩔 줄을 모르며 일찍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곧 그의 무죄하고 즐겁던 날에 손수 그 과실들을 따던 나무들을 주목해 본다. 아담은 이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인식하고 이것이 진실로 회복된 에덴임을 이해하며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깨닫는다(각 시대의 대쟁투, 648).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다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때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죄의 저주의 모든 흔적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께 충실한 자들은 영육이 한가지로 주의 완전하신 모양을 반사하며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고 나타난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구속인가! 이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대하고 열심히 마음에 그려보았으나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던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45).

## 영원한 세상의 영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시 16:11.

영원한 세상의 영광이 내 앞에 펼쳐졌다. 하늘은 소유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대 자신을 구속함을 받은 자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세상의 구속주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다시는 세상에 살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며, 나는 천연계에 있는 이 모든 사랑스러운 풍경들을 좋아한다.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연상한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하늘 나라에는 나를 위하여 훨씬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믿음으로 살리라, 364).

이 세상이 불로 정결해지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워질 것이다. 풀은 생생한 초록색을 띠어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장미와 백합과 각종 꽃들이 있을 것이다. 그 꽃들은 시들어 버리거나 아름다움과 향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사자가 그 때에는 어린양과 함께 누울 것이며, 새 땅의 모든 것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될 것이다. 새 땅의 나무들은 똑바로 높을 것이며 보기 흉한 것이 없을 것이다.

성도들은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금거문고를 들 것이다. 그들은 금거문고를 타고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겪은 시련과 고통은 새 땅의 영광 가운데서 잊혀질 것이다(청년지도자, 1852년 10월).

우리의 지상 본향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하늘 본향 어떤 예술가도 표현할 수 없으며 어떤 인간의 혀로도 묘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의 수정같은 강과 푸른 들, 흔들거리는 나무들, 그리고 생명수의 샘, 빛나는 도성과 흰옷을 입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연상시켜 주도록 하라(오늘의 나의 생애, 175).

그대들은 구원 받을 자의 본향을 상상하여 보고 또 그것이 그대의 상상보다도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을 기억하라(정로의 계단, 86).

인간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보상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하다. 그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알려질 것이다(살아남는 이들, 430, 431).

## 새 예루살렘의 본향

“너희는 나의 창조하신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사 65:18.

영화롭게 된 지상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와 함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사62:3),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은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계 21:11).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계 21:24)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은 기뻐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무도 편히 눕기를 구하는 자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아침의 상쾌함을 느낄 것이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비취심이라”(계 22:5). 그 때에는 태양 광선 대신에 눈이 부시지 않는 빛이 있을 것인데 그 광도는 오히려 오늘날 정오의 밝음도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영광은 거룩한 성을 빛나는 빛으로 비추며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태양은 없으나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성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계 21:22).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자유로운 교제를 할 특권을 얻는다.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전 13:12)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취는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와 그분의 인류에게 행하시는 일에 나타난 것으로만 볼 뿐이다. 그 때에는 두 사이를 희미하게 하던 아무런 휘장이 없이 대면하여 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니 그 앞에서 서서 그분의 얼굴이 영광을 직접 목도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76, 677).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거기서 가장 참되게 가장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거룩한 존재들과의 순결한 교제, 거룩한 천사들과 각 시대에 산 충성된 사람들과의 조화된 사교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하나로 결합하는 거룩한 교제, 이 모든 일들을 다 내세의 경험에 속한 것이다(교육, 306).

## 불멸의 유업

“그리하여 빛 가운데서 성도에게 주어질 상속의 분깃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신 아버지께 기쁨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 1:12 (새번역).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으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가고,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멸의 유업을 외면하고 자존심의 만족과 이기심과 허영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 세상과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들은 하늘 궁전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왕자들과 더불어 자유롭고 대등하게 교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하게도 하늘의 아름다움을 버렸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독생자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제언하신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는 이토록 놀라운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빛과 위엄이 되시는 분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분과 함께 하늘의 모든 보화를 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세상을 약속하셨지만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선물들을 주신다. 그리고 은혜의 백성된 우리가 성품을 고상하게 하고 계발시키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늘 궁정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의 영혼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그는 하늘의 거민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미래와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그들이 조금도 보지 못하게 하거나 하늘의 행복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누릴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가장 비천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도 하늘의 거민 곧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하늘 나라의 선물을 택하여 어떤 파괴자도 그 자격을 빼앗을 수 없는 유업 곧 영원한 세상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을 택하지 말고 더 좋은 유업을 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들은 뜻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234, 235).

## 승리하는 교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 15:2.

교회는 지금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암흑의 세계를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얻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함을 받은 여러 나라 사람들은 하늘 나라의 율법밖에 알지 못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하게 연합된 가족이 되어 찬송과 감사의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것이다.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만물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다. 세상은 하늘의 빛으로 덮일 것이다. 달빛은 햇빛처럼 될 것이며 햇빛은 지금보다 칠배나 더 밝아질 것이다. 세월은 기쁨 중에서 흘러갈 것이다. 거기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뻐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으리라고 선포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특권이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의 문턱에서 은혜로운 환영의 말씀을 듣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함께 면류관을 구속주의 발아래 던지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2,13)라고 부르짖는다.

거기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고귀하신 구주께로 인도해 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것이다.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견줄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자 돌아가신 분께 찬양을 올린다. 대쟁투는 끝난다. 모든 시련과 싸움도 끝이 난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설 때,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을 채운다.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양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치료봉사, 504~507).

## 예기치 못한 보상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냐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니라” 엡 6:8.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업이 결실이 거의 없는 것처럼 자주 느껴진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열렬하고 즐기찬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다. 우리의 눈에는 그 결과가 헛된 것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하늘 나라에 기록되며 반드시 그 보상을 받는다고 보증하신다(교회증언 6권, 305).

주님의 창고에 동전 두 닢을 넣은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다. 그 여자의 희생의 모본은 각 나라와 각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반응을 일으켰다. 그 모본은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선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했다. 또한 그것은 전도 사업을 유지하고, 병원을 세우고,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이타적인 행위로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하나님의 날에 자기가 끼친 이 모든 감화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구주께 바친 귀한 선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깨어진 옥합을 기억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실한 봉사를 하도록 격려되었던가! 또한 그 여자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교회증언 6권, 310).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셨다. 구세주께서는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당신의 복음에 관하여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한,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질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때가 마칠 때까지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다(시대의 소망, 563).

## 새 땅에서 할 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사 65:21, 22.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우리를 위해 마련된 저택을 가질 때는 행복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상태에서 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리뷰 앤 헤럴드, 1898년 6월 10일).

새로 지음을 받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던 일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에덴의 생활은 정원과 들에서의 생활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사 65:21, 22)이다(선지자와 왕, 730, 731).

나는 거기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처럼 빛이 나고 보기에 매우 찬란한 진주로 아로새긴 네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 이 집들에서 성도들이 살 것이다. 집집마다에 금시렁이 있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엎어 놓고 밭일을 하러 집 곁에 있는 들로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밭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았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었고 그들은 큰 소리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초기문집, 18).

모든 능력은 계발되고 모든 재간은 발달할 것이다. 지식을 얻는 데, 어떠한 큰 기도(企圖)라도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것 같은 일은 없어질 것이다. 어떠한 큰 기도라도 실행되고 아무리 원대한 포부라도 도달되며 한없이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요, 그 이상 더 탐색할만한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만한 새로운 경이, 이해할 만한 새로운 진리, 온 심령과 온 육체의 활동을 환기시키는 새로운 연구 제목들이 항상 전개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77).

## 비길 데 없는 음악

“여호와와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사 35:10.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 이외에서는 아무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음악과 노래가 있을 것이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와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대저 나 여호와와 시온을 위로하되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교육, 392).

나는 하늘의 완전한 음악에 귀를 기울이자 하늘의 질서, 완전한 질서를 보고 황홀하게 되었다. 그 계시에서 깨어난 후 이 세상의 노래를 들으니, 너무 거칠고 조화되지 않았다. 나는 완전한 정방형으로서 있는 천사들의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금겨문고를 가지고 있다. 거문고의 끝에는 거문고를 고정시키고 음을 바꾸는 기구가 붙어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은 거문고의 줄을 부주의하게 타지 않고, 여러 가지 줄을 이용하여 갖가지 음을 내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지휘하는 천사가 있었으며 그가 먼저 거문고를 타면 모두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음악에 참여하였다. 그 음악은 도무지 묘사할 수 없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빛나는 예수님의 형상이 모두의 얼굴에서 반사되면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거룩한 선율이다(교회증언 1권, 146).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만날 때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온 하늘은 훌륭한 음악과 어린양께 대한 찬양의 노래로 충만해진다. 그들은 영광의 나라에서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지게 된 것, 그것이 곧 그들에게 베풀어진 보상이다(성경주석 7권, 982).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한다 해도 하늘을 표현하려고 시도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하늘의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얼이 빠질 지경이었다.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현혹된 채 나는 펜을 놓으면서 “아, 어떠한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외쳤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이나 비할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초기문집, 289).

## 우리 구주의 최고의 영광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 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속 13:6.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악인들을 소멸하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된다.

오직 한 기념물이 남을 것이니 곧 우리의 구주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흔적을 영원히 가지시게 되는 것이다. 그 상하신 머리 위와 옆구리와 그의 손과 발에 죄가 행한 잔혹한 일의 자취가 남을 것이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취었도다”(합 3:4)하였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리신 그 옆구리에서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는 실로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것이다. 그분의 굴욕의 행적은 또한 그분의 최고의 영예이기도 하다. 갈보리에서의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권능을 선양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74).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과학이 되고 찬미가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끝없는 공간에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권능의 주 곧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임금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기를 낮추사 친히 죄와 치욕을 한 몸에 지시고 아버지 앞에서 떠나사 마침내 잃어버린 바 된 세상의 죄로 인하여 그 심장이 터져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실을 영원히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할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요 모든 운명의 결정자이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인생이 되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이와 찬양을 자아낼 것이다. 구원을 받은 만국 백성이 자기들의 구주를 바라보고 그 얼굴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남을 볼 때에, 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주님의 보좌를 보고 그 나라가 무궁히 존속될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은 환희의 소리를 높여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구속하시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미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51, 652).

## 내세의 학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계 21:3 새번역.

창세기 에덴에 설립되었던 학교와 내세의 학교와의 사이에는 인류의 범죄와 고난, 거룩하신 희생,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와도 같은 모든 범위의 이 세상 역사가 들어 있다. 에덴의 첫 학교의 사정들이 다 그대로 내세의 학교에 있지 않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유혹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는 유혹하는 자도 없고 악의 가능성도 없다. 모든 사람은 이미 악의 시련을 이긴 사람들로서 아무도 악의 힘에 움직여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앞에 돌아온 인류는 창세시와 일반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배울 것이다(교육, 386, 387).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평생 사업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시작된 교육은 이 세상에서 마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발전하면서 결코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향상될 것이다(치료봉사, 466).

지상의 학교에서 배운 모든 올바른 원칙, 곧 진리는 하늘 학교에서도 우리를 그만큼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학교에서도 우리를 생명 강가로 인도하시고 죄악으로 너무나 큰 손상을 입은 인간의 마음의 제한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감춰진 신비들로 남아야 했던 진리들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08, 209).

죄의 시작, 파멸적 허위와 그 부정한 활동, 곧은 길에서 구부러짐 없이 오류를 만나서 정복한 진리 등등의 역사가 다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은 휘장이 제거되고 기이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교육, 389).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될 것이다. 지식을 얻는 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것같은 일은 없어질 것이다. 어떠한 큰 기도라도 실행되고 아무리 원대한 포부라도 도달되며 한 없이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요, 그 이상 더 탐색할 만한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만한 새로운 진리, 온 심령과 온 육체의 활동을 환기시키는 새로운 연구 제목들이 항상 전개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77).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심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줄 알리라 곧 내니라” 사 52:6.

하나님의 앞에 돌아온 인류는 창세시와 같이 다시 하나님을 알 것이다(교육, 302).

우리는 그 때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인지 조금도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강가를 거닐 것이다. 그분께서는 천연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유한한 제한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진리를 내세에서는 알게 될 것이다(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162).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놀라운 교훈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천연계의 신비들을 계시하실 것이다.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한 손이 온 만물을 적당하게 붙들고 계심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위대하신 예술가께서 들의 꽃들을 채색하시면서 나타내신 기술을 보게 되 것이고 모든 빛을 분배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목적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름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인정할 것이다(오늘의 나의 생애, 361).

무한한 한계와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역사가 학생들에게 전개될 것이다. 죄의 시작, 파멸적 허위와 그 부정한 활동, 곧은 길에서 구부러짐이 없이 오류를 만나서 정복한 진리 등의 역사가 다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은 휘장은 제거되고 기이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교육, 304).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운 가운데서 타락하지 아니한 이들의 기쁨과 지혜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시대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바 보화를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무궁한 세월이 흐름을 따라서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엡 3:20)는 것이 영원토록 다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될 것이다(교육, 307).

## 미래의 연구 과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엡 2:7.

구속의 과학은 모든 과학 중의 과학이다. 그것은 천사들을 연구하고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모든 지적 존재들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의 주목을 끄는 과학이며 무한하신 분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감추어 있던 목적을 살펴보는 과학이다. 그것은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연구 과제가 될 과학이다. 이 과학은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연구 과제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학문과는 같지 않게 마음을 활기 있게 하고 영혼을 고상하게 할 것이다.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으로 영원토록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그것을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가치가 없겠는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의 희생과 중재 사업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지속되는 한 부지런한 연구자의 마음을 끌 것이다. 그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늘을 바라보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외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개발되었다면 우리의 이해력이 열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토록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혀는 구속의 주제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고자 갈망하셨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진리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영광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영원토록 나타날 것이다. 충실한 집주인께서는 끊임 없는 세대를 통하여 당신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끌어내실 것이다(오늘의 나의 생애, 360).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더 이상의 발견이나 더 큰 지식이나 더 큰 발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분 안에서 지혜의 온갖 보화가 있으므로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하고 배울지라도 그분의 지혜의 풍성함과 선하심과 능력은 결코 다함이 없다(영문 시조, 1906년 4월 25일).

## 끝없는 연구 과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벧전 1:10~12.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구속의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는 비록 우리의 모든 지력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치러진 치욕과 영과, 생명과 죽음, 공의와 자비를 아무리 신중히 생각하더라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구속하시는 사랑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는 다만 희미하게만 이해될 따름이다. 구속의 경륜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주께서 그들을 보신대로 보고, 아신 대로 알게 될 때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세토록 계속하여 새로운 진리가 그 경이와 희열에 넘치는 심중에서 전개될 것이다. 비록 땅위의 비탄과 고통과 시련이 그치고 그 원인이 제거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명백하고 심각하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값이 치러졌는지를 알 것이다.

십자가의 오묘함은 모든 다른 오묘한 것들을 설명한다. 우리로 하여금 경외함을 마지않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보리에서 발하는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매력 있는 것으로 된다. 신성, 공의, 권능과 함께 자비와 온유와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는 그 높고 높이 들린 보좌에 위엄을 보는 동시에 그 자비에 넘치는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랑스러운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우리는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희생 외에는 아무런 다른 계획을 세우실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희생의 결과가 이 세상을 거룩하고, 행복하고, 죽지 아니할 구속된 백성으로 채우게 하는 것이다. 구주께서 압후의 세력으로 더불어 싸우신 결과는 구속함을 얻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더한다. 영혼의 가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치러진 대가에 만족하시고 그리스도 자신도 자신의 큰 희생의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하시는 만큼 귀중한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51, 652).

구속함을 받은 무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이 될 것이다(예언의 신 3권, 261).

## 우주는 우리의 연구 분야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 104:24.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기 시작할 뿐이며, 이 연구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신의 모든 기능들이 작용할 수 있는 생각의 주제들을 사람을 위해 마련하셨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나타난 창조주의 성품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으로 찬탄해줄 수 있다. 하나님의 훌륭한 업적에 나타난 사랑에 대하여 모든 신경과 감각이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교회증언 4권, 581).

우리의 안목을 흐리게 하던 휘장이 제거되어 우리가 현미경을 통하여 언뜻 보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은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서 대충 보는 하늘의 영광들을 바라볼 때, 죄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온 세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나는 때에 얼마나 훌륭한 연구 분야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인가! 거기서는 그 과학도들이 창조의 기록들을 읽고서도 악마의 법칙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만물이 내는 소리의 음악을 듣고도 탄식의 소리나 슬픔의 나직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에게서 한 가지 필적만을 볼 것으로 과대한 우주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씌어진 것이 보일 뿐이요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 악의 흔적은 남지 않을 것이다(교육, 303).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은 여러 세계들을 순례할 것이며, 그들의 시간 중 많은 시간이 구속의 신비들을 찾아내는 데 바쳐질 것이다. 그리하여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주제는 그들의 마음에 계속 펼쳐질 것이다.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승리한 사람들이 누릴 특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성경주석 7권, 990).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가 연구를 위하여 개방될 것이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며 타락하지 아니한 이들의 기쁨과 지혜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사업을 숙고함으로 얻은 바 보화를 나눠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계속될 것이다(교육, 307).

## 우리가 장차 방문할 여러 세계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사 45:11, 12.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하늘 저택들이 하나님의 우주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리뷰 앤 헤럴드, 1900년 9월 25일).

주님께서는 내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내게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그 도성에서 어느 밝고 영광스러운 한 세계로 나를 인도하였다. 그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몸집이 모두 같았으며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나 그곳의 자유와 기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그들이 어찌하여 지구상에 있는 이들보다 것처럼 훨씬 더 사랑스러울지를 물어 보았다. 그 대답은 이러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으며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 그 후에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하나는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아주 흡사하게 보였다. 두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 중 한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먹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둘 다 먹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하여져 있었다. 그때 나를 시중들던 천사가 이르기를 “이곳에서는 아무도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맛본 이가 없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그 후에 나는 달이 일곱 개 있는 세계로 옮기워졌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승천했던 예노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옮겨진 곳이 여기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요 나의 집은 도성이고 이곳은 방문차 왔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나는 나를 수종드는 천사에게 그곳에 남아 있게 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네가 신실히 행하면 십사만 사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고 말하였다(초기문집, 39, 40).

## 새 땅에 관한 추측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막 12:25.

새 땅에서는 결혼하고 출생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으나,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새 땅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교훈은 확실한 말씀의 일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므로 오해될 수가 없다. 그분의 말씀은 새 땅에서의 결혼과 출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야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사람들이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 모두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곧 왕국에 속한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같이 분명한 말씀에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이 웅변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문제들에 관하여 추측하거나 가정하는 것은 외람된 일이다. 우리는 미래의 상태에 관하여 추측해서는 안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나무나 풀이나 짚, 곧 아무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는 그대 자신의 추측이나 억측을 티 위에 세우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드러난 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관한 교리들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의료봉사, 101).

영적인 우화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나타났다. 이는 이런 거룩하지 못한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버리자 지금 곧 버리라고 말하는 바이다. 그대들은 금지된 땅에서 있다(의료봉사, 101).

주님께서는 장래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계획들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추측해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상태에 준해서 미래의 세상의 상태를 측정해서도 안된다(의료봉사, 100).

##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단 7:27.

그리스도 나라의 정부는 세상의 어떤 정부와도 같지 않다. 그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품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궁정은 거룩한 사랑이 지배하고 사랑을 실천하므로 사람들의 지위와 직책이 영화롭게 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동정과 자애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에 참여할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분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순결케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해 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다(하늘에서, 372).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넓은 하수나 강이 들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와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와 우리에게 구원하실 것이이니라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사 33:20~24).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간곡히 권고하신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영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사 65:18~25)(하늘에서, 372).

## 새 땅에서의 안식일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와 말하노라 때 월삭과 때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사 66:22, 23.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창조사업을 마친 후 안식일에 쉬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창 2:1)였을 때에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게 소리하였느니라”(욥 38:7).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시”(행 3:21) 때가 올 것인데 그 때에도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날인 창조의 안식일이 역시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연합하여 “때 안식일에”(사 66:23) 찬양을 드리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시대의 소망, 769, 770).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늘의 율법밖에 알지 못할 것이다. 모두가 찬양과 감사로 웃입고 행복하고 연합한 가족이 될 것이다. 그 광경 위에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뻐 부르짖을 것이다.

“여호와와 말하노라 때 월삭과 때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선지자와 왕, 732, 733).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자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때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마 5:18; 사 66:23)(시대의 소망, 283).

## 영원한 안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속 14:9.

큰 구속의 경륜은 결코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시킨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람 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6천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령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단 7:18).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때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시 113:3)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속 14:9)라.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시 111:7, 8)라고 하였다. 사단이 미워하고 멸하고자 노력한 거룩한 율법은 죄없는 우주에서 널리 영광을 받을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342).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사단의 비난은 논박을 당하고 그의 본성은 폭로되었다. 반역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온 우주는 배도로부터 떠나서 안전하게 된다.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오셔서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선물-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것이다(시대의 소망, 26).

##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삶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 91:16.

그리하여 우주간의 온갖 보화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연구 자료로 공개될 것이다. 죽음의 속박이 없이 그들은 다른 세계 일찍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서는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꾸준히 날아간다. 땅의 자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지혜와 기쁨에 참여한다. 그들은 여러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명상하여 얻은 지식과 지혜의 기쁨의 보배를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눈으로 창조의 영광-태양과 별들과 계통들이 모두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도는 것을 본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지극히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조물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이 나타난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더욱 분명하고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지식이 더하여지는 것처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더해진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찬탄은 더욱 더해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의 놀라운 성과를 제시하시는 때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받으며 즐거움이 충만하여 금거문고를 타고 천천만만의 음성은 합하여 거대한 찬양의 합창을 부른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바다 위와 또 그 모든 가운데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15:3) 하더라.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더 이상 있지 않다. 온 우주는 정결하여졌다. 조화와 기쁨의 맥박이 광대한 우주를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기쁨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무한한 우주로 퍼져 나갈 것이다. 가장 미세한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는 모든 만물이 생물이거나 무생물이거나를 막론하고 그늘지지 않은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77, 678).

◇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계 21:11). … 하나님의 성안에는 “밤이 없”음이라. 휴식이 필요하지도,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힘드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항상 아침의 신선함을 느낄 것이며 그 새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등불과 햇빛이 쏠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계 22:5). 태양빛 대신에 찬란한 광채가 비치지만 이 빛은 눈이 부시거나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낮의 햇빛보다 더욱 밝은 빛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영광이 쇠하지 않은 빛이 되어 거룩한 성에 흘러내린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태양없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 살 것이다. … 그곳에서 불사(不死)의 몸을 받은 사람들은 다함이 없는 기쁨으로 창조력의 경이와 속죄애(贖罪愛)의 오묘를 연구할 것이다. 하나님을 등한히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교활한 원수는 없다. 모든 재능은 계발되고 재간은 증가된다. 지적 탐구에 있어서 피곤해지거나 기력이 모자라는 일은 없다. 그곳에서는 가장 원대한 계획도 실현될 것이며, 가장 고상한 포부도 달성될 것이며, 가장 위대한 꿈도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는 도달해야 할 더욱 높은 봉우리, 찬탄할 만한 새로운 경이, 연구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능력을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대상들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사랑과 공경, 그리고 행복도 증가한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찬탄이 커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풍성함과 사단과의 쟁투에 있어서의 놀랄만한 성과를 공개하실 때에 구원받은 자들의 가슴은 더욱 열렬한 헌신으로 뛰고, 더 힘차게 거문고를 탄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목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죄와 죄인이 다시 없으며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하며 대쟁투는 영원히 끝난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431~433. ◇

# 때의 징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눅 12:56].

바스락거리는 나뭇잎들이 내가 앉아 있는  
내 주위에서 모두 떨어지고 있었다.  
햇빛이 비치는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게 무엇인가?  
햇살과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한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은 그 친절함을 인해 이제 붉은 색으로  
땅을 흠뻑렸다.

여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말해 줄 선견지명이  
필요 없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언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여름, 가을, 겨울, 봄의 징조를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오심을 알리는 징조를  
알고 있는가?

징조들은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 웅장하고 구식 책의 축복받은  
페이지들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분의 오시는 날은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다.  
그 징조들은 땅과 바다와 하늘에 우리 주위에  
있다.

그의 신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예복을 입고, 영광과 그의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 기다린다.

보라! 그가 빨리 오신다! 보라, 신랑이 가까이  
오신다!  
징조들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우리 주위에 있다.

어린 양의 혼인예식을 위하여 만찬 준비는  
되었는가?

아니면 모두 그대에게 하나의 웃음거리,  
하나의 이론, 그리고 하나의 사기인가?  
그대는 말한다.

"아, 그 이야기는 전에도 여러 번 들었어."  
그래서 그대는 신랑이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준비의 날, 그리고 구름과 어둠의 날, 끔찍한  
어둠의 날, 그리고 끔찍한 파멸의 날,  
모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날,  
그렇다면 누가 동굴에 피난처를 구할 것인가?

오,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루 하루 기다리면서

"보라! 그는 빨리 오신다."

이제 나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그 징조들은 분명히 그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와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작자 미상